

농업·농촌경제동향

2015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yslee@krei.re.kr 박미성 mspark@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박지원 jione1105@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62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5
4. 물가	8
5. 금융·환율	12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16
2. 농림어업 취업자	19
3. 농축산물 수출입	21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7
2. 엽근채소	31
3. 양념채소	38
4. 과일	47
5. 과채	53
6. 축산	61

특별주제

육류의 수요 변화와 소비 확대 방안	71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와 대응방안	89
배추 등 채소 가격동향과 소비자의 인식	100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경제성장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및 수출 부진으로 크게 둔화됨. 201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하는 데 그침. 농림어업 성장률은 전기대비(계절조정) 11.1%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함.
- 2015년 2/4분기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고령화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됨.
- 2015년 6월 소매판매는 메르스 영향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과 휘발유·경유 판매량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감소하였으며, 소비심리지수도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 7.5% 하락함.
-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데 그침. 반면, 농축산물의 가격은 기저효과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함.
- 가계부문 위주의 통화량 증가세가 확대됨. 2015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대비 1.9%, 광의통화(M2)는 1.0% 증가함.
- 2015년 6월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상승함.
- 2015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 지속,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소폭 하락하여 원화는 달러화대비 약세, 엔화대비 강세를 보임.

Ⅱ. 농촌경제 동향

- 2015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1% 높았으나 전분기보다는 7.3% 낮았음. 부류별로는 곡물이 미곡과 두류/잡곡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0%, 전분기 대비 1.6% 하락함. 채소와 과일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2%, 2.4% 상승하였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서는 각각 18.6%, 11.0% 하락함. 축산물은 육우송아지 등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14.2%, 전분기보다 10.2% 상승함.
- 2015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5%, 전분기대비 0.8% 상승함. 농업용품은 전년동기대비 1.1% 하락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0.3% 상승하였으며, 농촌임료금은 전년 동기대비 4.5%, 전분기대비 2.7% 상승함. 이에 따라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2%, 전분기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2/4분기 농업경영조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94.2로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8.0%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4.1%)이 농업투입재가격 지수(1.2%)보다 더 크기 때문에 농업경영조건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2/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6만 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8%, 전분기대비 2.1% 감소함.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 2.7% 감소함. 수출액의 경우 농산물과 축산물이 소폭 증가했으나 임산물은 30.4% 감소하였고, 수입액의 경우 축산물이 4.9% 증가했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은 감소함.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육류의 수요 변화와 소비 확대 방안

- 2014년 들어 한우의 평균 도매가격은 2013년보다 12%, 돼지는 31% 높게 형성되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7%, 16% 상승하는 등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에 큰 변화가 나타남.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캠핑문화 확산,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대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요 대체, 학교급식 증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음.
- 쇠고기의 각종 수급요인 변화가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이 전년대비 0.3%, 쇠고기 수입량은 9.3% 증가하여 도매가격이 각각 0.2%, 1.6%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수요 측면에서는 2013년 7월 이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산물 대체수요가 3.0%, HPAI로 인한 대체수요가 3.1% 증가하여 쇠고기 도매가격이 각각 2.8%, 2.9%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기타(소비 촉진 할인행사,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수요 증가 요인이 4.3%로 조사되어 4.0%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돼지고기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이 전년대비 3.1% 감소하고, 수입량은 48.1% 증가하여 도매가격이 각각 10.0%, 2.4%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수요 측면에서는 방사능 유출과 관련한 수산물 대체수요가 10.3% 증가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8.4%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또한 AI로 인한 대체수요가 5.3%, 기타(캠핑문화 확산, 저지방부위 선호 등) 수요 증가 요인으로 5.1% 증가하여 각각 8.9%, 8.5%의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육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변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육류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장 대응이 필요함. 또한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위해요인 제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식문화 개척이 필요함.

2.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와 대응방안

- 고추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장개방과 농가 고령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은 정체되어 생산량은 연평균 5.7%씩 감소함.
- 고추류 총수입량은 연평균 9.4%씩 증가하였으며, 냉동고추와 혼합조미료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고추류 총수출량은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고추류 순수입량은 연평균 9.7%씩 증가함.
- 2000년산 건고추 자급률은 89%에 이르게 반해 최근 5개년의 평년 건고추 생산량은 99,977톤이며 고추류 수입량은 100,723톤으로 국내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어 전년 이월량을 포함한 자급률은 54% 수준에 그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4,600ha 내외로 조사되었고, 6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로 가뭄이 해갈되어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2015년산 건고추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한 경우, 생산량은 7만 8천 톤으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8%, 평년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이 최저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급량도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 감소는 차기 연도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 가격하락, 재고량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악순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2015년산 고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을 1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 등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함. 또한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노동력이 적게 필요한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비가림(하우스) 재배 확대 및 생육관리 지도 확대를 통해 단위당 수확량을 증가시킬 필요 있음. 마지막으로 TRQ 수입량 및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할 필요 있음.

3. 배추 등 채소 가격동향과 소비자의 인식

- 2010년 배추 가격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후 하락하였음. 2014년에는 2011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올해 2/4분기에는 다시 반등하였음.
- 배추는 가격변동이 커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봄·여름철에는 육류나 과일보다는 불만순위가 낮게 나타남. 이는 배추가 가격변동성은 크지만 구입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배추는 소비자의 3분의 1만이 여름에 월 1~2회 구입하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계절에 1~2회 구입하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배추 대용 채소로는 얼갈이배추와 열무가 이용되고 있음. 소비자의 배추 가격에 대한 체감 수준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추 구입 경험이 없거나 구입 횟수가 적어서 배추 값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봄·여름 배추 가격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 배추 가격의 변동 이유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에 대해 대국민 홍보로 이해를 확산하고, 2) 얼갈이배추, 열무 등을 이용한 식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분산시키며, 3) 배추의 수급 전망 정보를 고려하여 대체 품목의 생산·공급 전략을 수립토록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체 품목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4) 김치 업체나 외식업체 등 필수적 수요처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배추를 조달하도록 장려해야 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2/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하는데 그쳐 최저치를 기록함.
 - 지난 5월말 이후 메르스사태와 가뭄으로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감소하고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투자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 부문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수출은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음.
 - 2015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줄어 전기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5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7%,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기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4.8% 증가함.
 - 2015년 2/4분기 총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0.9% 소폭 감소함.
 - 총수입은 원유, 자동차, 거주자 국외소비 등이 늘어 전기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박한울 연구원(phu87@krei.re.kr)이 작성하였음.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4 ^p				2015 ^p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3.9	3.4	3.3	2.7	2.5	2.2 (0.3)
최종소비지출	2.7	1.7	2.0	1.8	1.9	2.0 (0.0)
(민 간)	2.6	1.7	1.5	1.4	1.5	1.6(-0.3)
총고정자본형성	5.8	3.3	3.3	0.7	2.4	2.6 (1.7)
(건 설)	4.1	0.2	2.3	-1.5	0.6	1.7 (1.7)
(설 비)	7.2	7.7	4.2	4.2	5.8	4.8 (0.4)
총 수 출	4.2	3.4	2.2	1.4	0.1	-0.9 (0.1)
총 수 입	3.2	2.9	2.3	0.1	1.9	1.1 (0.5)

주: 2014^p, 2015^p 자료는 잠정치임. ()안의 숫자는 원계열 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제조업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농림어업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계절조정) 11.1%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대비(원계열) 3.5% 감소함.
 - 제조업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8% 증가함.
 -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0.1%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4 ^p				2015 ^p	
	1/4	2/4	3/4	4/4	1/4	2/4
농 립 어 업	5.9	3.1	1.0	0.5	6.3	-3.5(-11.1)
제 조 업	5.0	5.0	3.4	2.5	0.7	0.4 (0.8)
서 비 스 업	3.6	2.7	3.2	3.1	3.2	3.0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	4.1	2.0	2.4	1.6	1.9	2.1(-0.5)
(금융 및 보험업)	5.2	5.4	5.5	6.6	7.2	7.5 (2.3)
(부동산 및 임대)	1.6	1.8	2.2	1.8	1.9	1.9 (0.6)
(보건 및 사회복지)	7.7	7.2	7.0	8.0	7.3	4.2(-1.7)

주: 2014^p, 2015^p 자료는 잠정치임.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경제(GDP)성장률은 금년중 2.8%(상반 2.4% → 하반 3.1%)를 기록할 전망이며 작년(3.3%)에 비해 하향조정됨.
 - 수출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사태, 가뭄으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됨.
- 올해 민간소비는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여건 개선 및 주택시장 호조로 인해 회복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내수기업의 투자여건 및 해외수요 여건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에는 3.3%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7	3.0	3.3	2.4	3.1	2.8	3.3
민간소비	2.1	1.5	1.8	1.7	2.0	1.8	2.8
설비투자	7.5	4.2	5.8	5.2	5.6	5.4	5.6
건설투자	1.8	0.4	1.0	1.0	5.8	3.6	2.5
상품수출	3.7	1.0	2.3	-1.0	3.9	1.5	3.0
상품수입	2.1	0.3	1.2	0.7	2.7	1.7	3.3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5.7.9.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참고

2. 2015^{e)}, 2016^{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5년 2/4분기 취업자수는 2,609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함.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증가세 또한 소폭 확대

되면서 취업자가 늘어남.

- 2015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1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취업자수보다 경제활동인구가 더 늘어나 실업률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0.1%p 증가함.
-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농번기로 인해 전분기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한 감소세 지속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함.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소비, 관광·여가 등 도소매·음식숙박업 활동이 전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음.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3	2014			201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경제활동인구	25,873	26,536	25,945	26,767	26,356	27,140	1.4
(경제활동참가율)	61.5	62.4	61.3	63.1	61.5	63.2	－
취 업 자	25,066	25,599	24,913	25,790	25,267	26,098	1.2
· 농 림 어 업	1,520	1,452	1,179	1,631	1,092	1,505	－7.7
· 광 공 업	4,200	4,343	4,294	4,334	4,428	4,479	3.3
(제 조 업)	4,184	4,330	4,279	4,319	4,418	4,466	3.4
· 건 설 업	1,754	1,796	1,683	1,813	1,756	1,857	2.4
· 도소매·음식숙박업	5,630	5,889	5,837	5,798	5,984	5,927	2.2
실 업 자	807	937	1,031	977	1,089	1,042	6.7
실업률(계절조정)	－	－	3.5	3.7	3.7	3.8	－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음.
- 2015년 5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전분기대비 0.8%),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전분기대비 0.3%)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보합세이며,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함.
- 6월 소매판매는 메르스 영향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과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전월보다 둔화될 가능성 있음.

소 비 동 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p	5월 ^p
민 간 소 비	1.9	1.8	2.6	1.7	1.5	1.4	1.5	-	-
소 매 판 매	0.7	1.7	2.4	0.8	1.5	1.9	1.6	4.9	3.5
(내 구 재)1	0.3	5.1	3.8	-0.2	1.8	1.3	5.2	0.5	-1.1
(준내구재)2	2.1	-0.6	-1.4	-1.1	4.8	-1.8	-3.5	2.9	0.8
(비내구재)3	0.4	0.8	-0.9	0.2	-0.7	1.0	-0.5	1.5	0.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5년 4월^p, 5월^p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5년 1/4분기 가구의 전년동기대비 소득 증가율이 2.6%로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으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임.
- 2015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1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실질로는 2.0% 증가)함.
 - 근로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3.8%)이 증가하였으며,

- 재산소득(17.9%), 이전소득(10.4%)도 증가
- 사업소득 4.6%, 비경상소득은 2.1% 감소
 - 2015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5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실질로는 0.6% 감소)임.
 - 월세 지출 및 외식, 의약품 등의 소비 증가로 주거수도광열(3.8%), 음식·숙박(3.8%), 보건(4.0%) 등이 증가
 - 유가하락, 이동전화기기 및 의류에 대한 소비 감소로 교통(4.5%), 통신(8.4%), 의류신발(5.3%) 등은 감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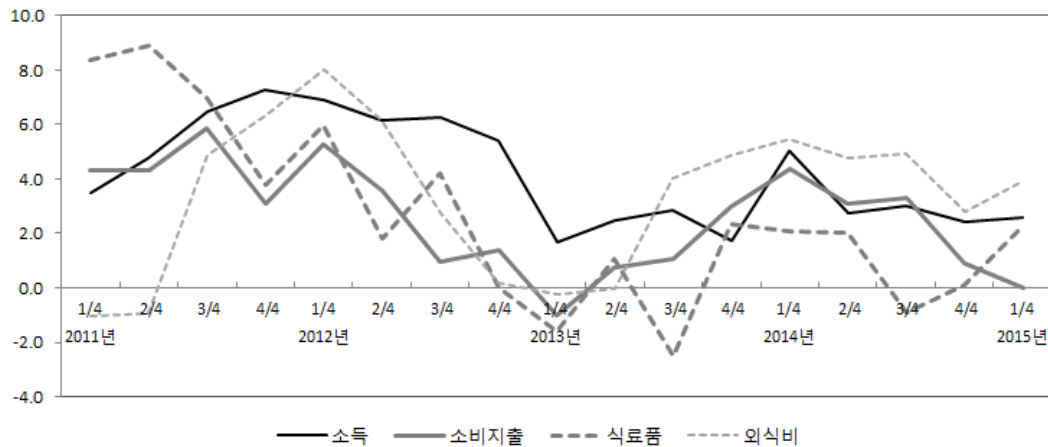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소 득	2.1	1.7	2.5	2.9	1.7	3.4	5.0	2.8	3.0	2.4	2.6
(경상소득)	2.3	2.1	3.0	2.8	1.7	3.2	4.4	2.9	3.0	2.3	2.8
(비경상소득)	-3.6	-8.5	-10.7	4.8	3.1	8.6	20.9	-0.4	2.2	8.1	-2.1
소 비 지 출	0.9	-1.0	0.7	1.1	3.0	2.8	4.4	3.1	3.3	0.9	0.0
(식료품·비주류음료)	-0.3	-1.6	1.1	-2.5	2.3	0.8	2.1	2.0	-0.9	0.1	2.3
(의류·신발)	2.2	4.8	0.5	0.9	2.6	-0.1	-1.2	2.3	2.9	-2.9	-5.3
(교 통)	1.9	1.9	0.9	3.4	1.6	8.6	12.2	5.9	13.7	3.1	-4.5
(교 육)	-1.8	-6.9	0.9	0.7	-0.2	0.4	2.6	0.5	-1.1	-0.5	-1.6
(음식·숙박)	2.7	-0.1	0.4	4.6	5.2	4.7	6.1	4.9	5.2	3.3	3.8

자료: 통계청

- 2015년 1/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실질로는 0.9% 증가)함.
 - 쇠고기, 채소 등의 가격인상 및 소비증가로 육류 9.3%, 채소 및 채소가공품 4.3% 증가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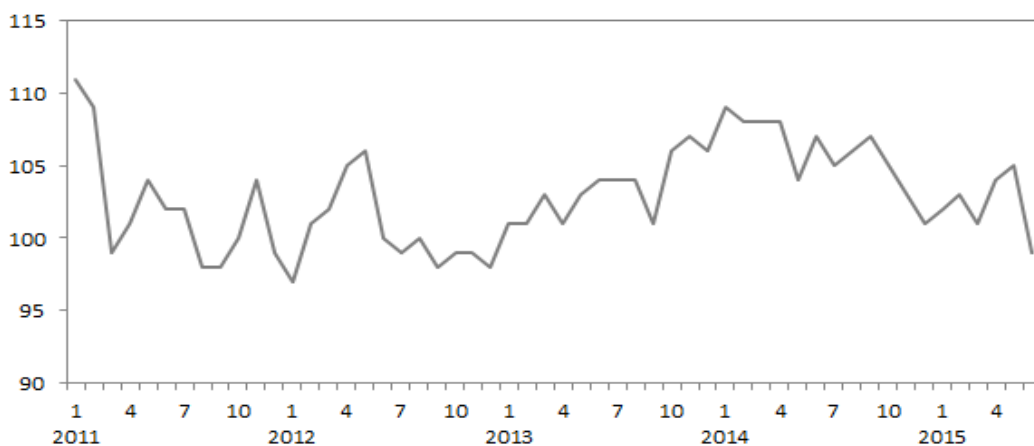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2015년 6월 소비심리지수²⁾는 99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107)대비 7.5%, 전월 대비(105) 5.7% 하락한 수준임.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2)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함.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4.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이 2014년 2/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5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을 기준)는 109.7로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이 0.5% 수준에 불과함.
 -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상품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8%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물가 지수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함.
 - 2014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 가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였음. 반면 석유류 가격하락 및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0.4%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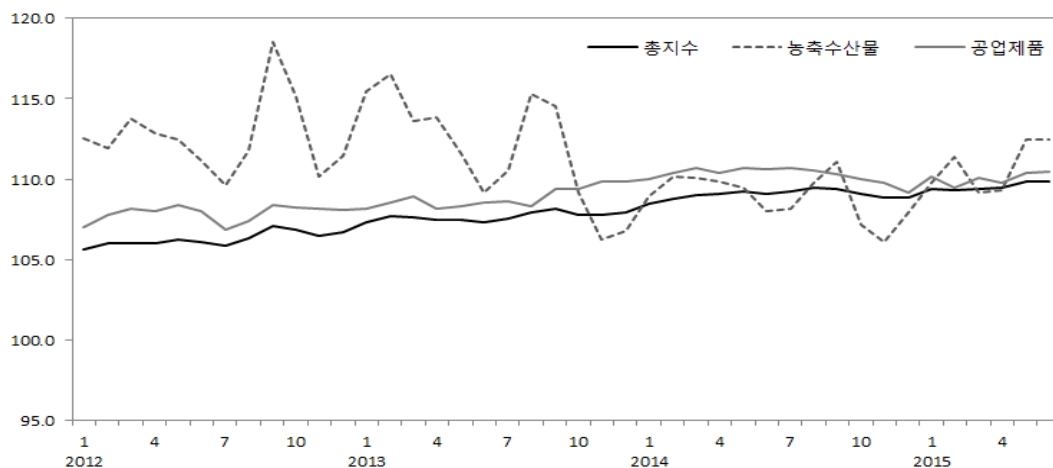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7.7 (1.3)	109.0 (1.2)	108.8 (1.1)	109.1 (1.6)	109.4 (1.4)	108.9 (1.0)	109.4 (0.6)	109.7 (0.5)
상 품	110.1 (1.1)	111.1 (0.9)	111.3 (1.0)	111.4 (1.6)	111.4 (1.0)	110.3 (0.2)	110.6 (-0.6)	110.5 (-0.8)
농축수산물	111.9 (-0.6)	108.9 (-2.7)	109.7 (-4.8)	109.1 (-2.2)	109.7 (-3.3)	107.1 (-0.3)	110.1 (0.4)	111.4 (2.1)
공업 제품	108.8 (0.8)	110.3 (1.4)	110.4 (1.7)	110.6 (2.0)	110.5 (1.6)	109.7 (0.0)	109.9 (-0.5)	110.2 (-0.4)
서 비 스	105.8 (1.5)	107.4 (1.5)	106.8 (1.3)	107.4 (1.6)	107.8 (1.7)	107.8 (1.6)	108.4 (1.5)	109.1 (1.6)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로 전월과 비슷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전월에 비해 교통,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상승하였고 오락·문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하락함.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통신, 교육 등은 변동 없음.
 - 전년 동월에 비해 주류·담배,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육,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하락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5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11.4로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하였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2% 상승함.
 - 2015년 2/4분기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함. 곡물과 과실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8%, 7.8% 하락한 반면, 채소는 16.0% 상승함. 배추 등의 채소 가격이 낮았던 지난해 기저효과, 가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실질 상승률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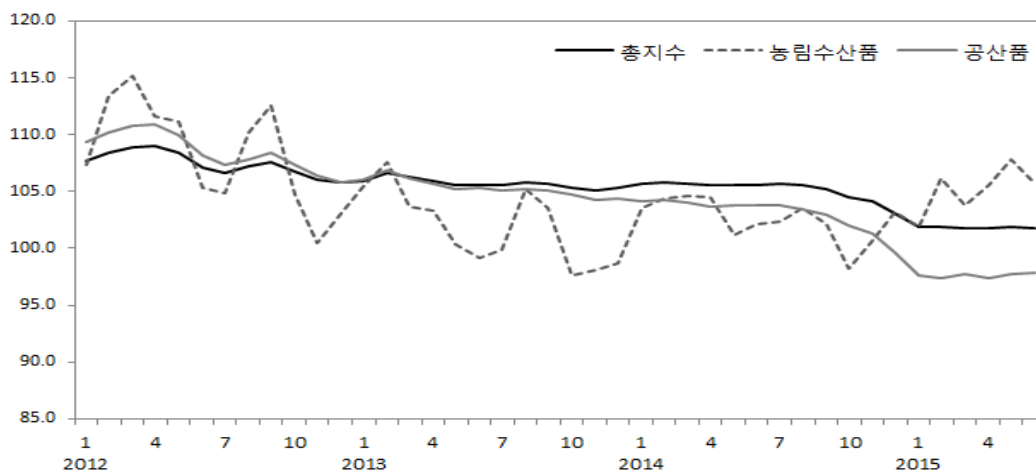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2013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1.9	108.9	110.1	111.4	2.1	1.2
농산물	117.1	105.3	107.1	107.3	2.1	0.2
곡물	127.1	123.3	120.7	119.9	-2.8	-0.7
채소	101.9	84.8	94.6	92.4	16.0	-2.2
- 배추	97.0	54.4	43.6	74.1	71.4	70.1
과실	120.7	111.5	104.6	109.0	-7.8	4.1
기타농산물	147.7	135.8	144.2	140.8	7.3	-2.4
축산물	101.2	110.8	110.5	114.6	2.7	3.7
수산물	112.8	115.0	117.3	116.7	1.0	-0.5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5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1.8로 전분기대비 0.1% 하락, 전년동기대비 3.6% 하락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공산품,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3.8로 전년동기대비 3.9% 하락함. 6월 수출 물가는 84.8로 전년 동월보다 2.2% 낮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 동월대비 8.7% 하락함.
- 2015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88.5로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함.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89.8로 전월대비 1.9% 상승, 전년동월대비 2.9% 하락함.
- 2015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3.8로 전년동기대비 3.9% 하락하였으나,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화학제품,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2.3%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5월	6월
총 지 수	93.7 (-4.3)	88.1 (-6.0)	83.6 (-7.8)	83.8 (-3.9)	83.8 (-3.5)	84.8 (-2.2)
농림수산물	97.6 (-12.5)	91.8 (-5.9)	90.6 (-2.3)	88.5 (-1.8)	88.2 (0.5)	89.8 (-2.9)
농 산 물	152.3 (5.0)	147.2 (-3.3)	142.3 (-6.8)	140.8 (-7.1)	140.0 (-7.3)	142.6 (-5.0)
공 산 품	93.7 (-4.2)	88.1 (-6.0)	83.5 (-7.9)	83.8 (-3.9)	83.8 (-3.5)	84.7 (-2.3)

주: ()는 전년동기,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수입물가는 크게 하락하였음. 2015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1.4로 전분기 대비 0.2% 하락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15.2% 하락함.
- 2015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82.1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6% 상승, 전년동월대비 13.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18.3%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하락하였으며 중간재는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상승함.
- 자본재는 전월대비 1.3%, 소비재는 전월대비 1.1% 상승함.
- 2015년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2.9로 전월대비 1.6% 상승,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02.7 (-7.3)	94.9 (-7.6)	81.6 (-18.2)	81.4 (-15.2)	81.6 (-14.6)	82.1 (-13.9)
농림수산물	101.0 (-5.9)	98.9 (-2.1)	96.9 (-2.0)	92.5 (-7.0)	91.4 (-8.1)	92.9 (-4.9)
농 산 물	100.6 (-9.5)	91.5 (-9.0)	87.4 (-7.4)	84.0 (-9.6)	82.5 (-11.3)	85.0 (-6.3)
공 산 품	95.3 (-7.1)	89.0 (-6.6)	83.5 (-9.4)	83.3 (-6.0)	83.2 (-5.6)	84.2 (-4.1)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5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대비 1.9% 증가(원계열 전년동월대비 18.9% 증가)하여 통화량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임.
- 2015년 5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월대비 1.0% 증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함.
 - 협의 통화(M1) 포함 금융상품과 2년 미만 금전신탁, MMF 등 상대적으로

자금입출이 자유로운 상품 위주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부문위주로 증가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전월대비 1.1% 증가(원계열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9.2	11.9	11.8	12.1	12.6	13.4	12.5	14.3	15.5	17.7	18.9
M22	6.5	7.6	7.1	7.5	8.3	8.1	8.0	8.0	8.3	9.0	9.3
Lf3	6.9	7.3	7.1	7.3	8.1	8.2	8.4	8.6	9.3	10.0	10.3
본원통화4	11.6	14.9	10.7	14.4	13.9	13.6	15.0	15.9	15.3	16.4	15.7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5년 6월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시장 금리는 소폭 상승함.
 - 국고채(3년)금리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부담 우려 등 상승요인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등 하락요인 교차하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
 - 회사채금리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상승
 - 6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소폭 순유출
 - CD유통수익률(91일)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2015년 6월 기준 1.7%임.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현재 3~4%수준에서 변동금리는 연 1.8%, 고정금리는 연 2.5% 수준으로 낮아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임.

금리동향

단위: %

	2014					2015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2.54	2.40	2.24	2.14	2.14	2.04	2.02	1.87	1.84	1.75	1.79
회사채 ¹	2.93	2.79	2.60	2.47	2.46	2.36	2.30	2.13	2.11	2.06	2.11
CD유통수익률(91일)	2.52	2.35	2.21	2.14	2.13	2.13	2.12	1.95	1.80	1.80	1.65
콜금리 ²	2.34	2.24	2.07	1.98	1.99	1.99	1.99	1.83	1.74	1.74	1.50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원/엔 환율은 하락하여 원화는 달러화대비 약세, 엔화대비 강세를 보임.
 - 2015년 2/4분기 원/유로 환율은 하락하였으나 원/위안 환율은 상승
- 2015년 6월 원/달러 환율은 1,112원으로 전월 1,091원보다 21원 소폭 상승함.
 - 미 경제지표 호조 지속,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및 그리스 채무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2015년 6월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899원이며, 6월말 원/유로 환율은 유로지역 경기회복 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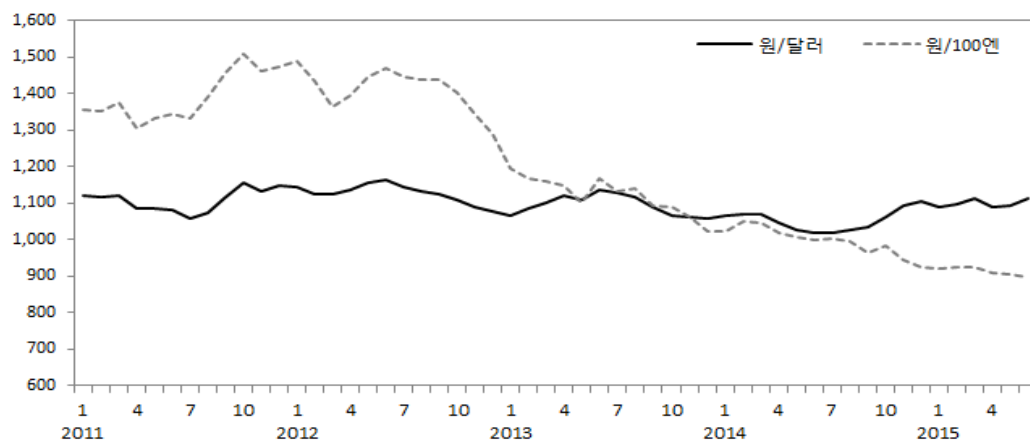
원화 환율 동향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1/4	2/4	5월	6월
원/달러	1,095	1,053	1,069	1,030	1,100	1,098	1,091	1,112
원/100엔	1,123	996	1,040	1,009	923	905	905	899
원/유로	1,454	1,399	1,465	1,413	1,239	1,214	1,219	1,247
원/위안	178	171	175	165	176	177	176	179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Ⅱ. 농촌경제 동향³⁾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촌 물가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5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2010=100 기준)는 116.1로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하고 전분기대비 7.3% 하락함.
 - － 부류별로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 축산물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곡물은 하락함. 계절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실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9로 전년동기대비 4.0%, 전분기대비 1.6% 하락함.
 - － 미곡에서는 일반미가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6.0%, 전분기대비 2.7% 하락함. 두류/잡곡 역시 콩, 팥 등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20.1%, 전분기대비 4.3% 하락함.
 - － 서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4.8%, 전분기대비 16.2%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상승하고 전분기에 대해서는 18.6% 하락함.
 - － 엽채류에서는 배추가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품목에서 대부분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28.0% 상승함.
 - － 조미채류는 풋고추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23.3% 감소하였으나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25.6% 상승함.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박지원 연구원(jione1105@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69.6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대비 11.0%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6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전분기대비 7.2% 상승함.
 - 가축에서는 육우송아지와 한우송아지 등이 크게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14.2%, 전분기대비 10.2%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6.8로 특용작물과 화훼가 하락하여 전년 동기대비 1.6%, 전분기대비 14.1%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3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2	111.3	118.1	111.5	125.3	116.1	4.1	-7.3
곡물	280.1	124.0	115.7	117.4	114.5	111.7	109.9	-4.0	-1.6
-미곡	234.3	124.5	120.4	122.3	119.0	115.0	111.9	-6.0	-2.7
-맥류	5.5	120.0	135.8	129.2	135.2	138.7	143.3	6.0	3.3
-두류/잡곡	23.9	138.8	88.2	97.0	93.7	78.3	74.9	-20.1	-4.3
-서류	16.4	95.4	82.5	73.7	73.1	103.7	120.5	64.8	16.2
청과물	406.5	124.4	116.2	134.3	120.1	152.7	129.3	7.7	-15.3
-채소	268.9	111.4	96.4	111.4	96.8	133.4	108.6	12.2	-18.6
-과실	137.6	149.9	154.8	179.0	165.6	190.5	169.6	2.4	-11.0
축산물	252.6	84.0	98.5	92.8	97.7	99.4	106.6	9.1	7.2
-가축	185.1	72.2	89.6	81.7	88.8	92.0	101.4	14.2	10.2
-유란	67.5	116.3	122.8	123.1	122.2	119.8	120.8	-1.1	0.8
기타농산물	60.8	110.5	111.7	118.1	98.4	112.7	96.8	-1.6	-14.1
-특용작물	42.4	120.2	123.2	122.9	104.5	119.0	100.9	-3.4	-15.2
-화훼	15.3	86.1	83.6	109.3	82.4	99.6	87.0	5.6	-12.7
-부산물	3.0	98.5	93.9	94.4	94.4	90.0	90.0	-4.7	0.0

자료: 통계청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5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2010=100 기준)는 109.1로 전년 동기보다 0.5%, 전분기에 비해서는 0.8% 상승한 수준임.
- 농업용품지수는 107.4로 전년 동기보다 1.1% 하락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3% 상승함.
 - 사료가 전년동기대비 5.1%, 전분기대비 2.1% 하락하였으나, 가축이 전년동기 대비 25.0%, 전분기대비 16.2%로 크게 상승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35.5로 전년 동기보다 4.5%, 전분기보다 2.7%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임차료는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1.1% 상승하였고, 전분기대비 2.7%, 0.8%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3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7.1	108.4	107.8	108.6	108.2	109.1	0.5	0.8
가계용품	576.0	105.5	106.7	106.3	106.9	107.6	108.1	1.1	0.5
농업용품	376.9	107.7	108.3	108.1	108.6	106.0	107.4	-1.1	1.3
-종자	29.3	144.4	146.2	146.0	146.0	139.2	139.2	-4.7	0.0
-비료	39.0	92.4	79.6	79.6	79.6	80.1	80.1	0.6	0.0
-농약	29.9	113.7	117.6	117.4	117.4	124.2	124.2	5.8	0.0
-농기구	64.0	114.1	116.9	115.7	115.7	119.5	119.5	3.3	0.0
-영농광열	26.7	127.3	120.0	123.5	123.1	84.5	87.8	-28.7	3.9
-가축	51.3	60.2	82.0	73.9	80.9	87.0	101.1	25.0	16.2
-사료	125.0	114.4	110.4	112.8	111.7	108.3	106.0	-5.1	-2.1
-영농자재	11.7	107.9	105.9	106.5	106.5	97.0	97.0	-8.9	0.0
농촌임료금	47.1	122.2	128.9	125.1	129.7	132.0	135.5	4.5	2.7
-농업노동임금	44.9	122.4	129.3	125.3	130.1	132.6	136.2	4.7	2.7
-농기계임차료	2.2	117.9	121.0	120.1	121.3	121.6	122.6	1.1	0.8

자료: 통계청

1.3. 농업경영조건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5년 2/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상승세임. 전년동기대비 1.2%, 전분기에 비해서는 1.5% 상승한 123.2임.
- 2015년 2/4분기 농업경영조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94.2로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하고 전분기대비 8.7% 하락함.
 - 전년 동기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이 농업투입재가격지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농업경영조건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분기와 대비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채소 및 과실류 등의 판매가격지수 하락으로 인해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

	2014		2015		등락률(%)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8.1	111.5	125.3	116.1	4.1	-7.3
농업투입재가격지수(B)	119.5	121.8	121.4	123.2	1.2	1.5
농업경영조건(A/B×100)	98.8	91.6	103.2	94.2	2.9	-8.7

주: 농가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5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0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7.8%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6만 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8%, 전분기대비 2.1%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한 84만 2천 명이었고, 여성은

8.8% 감소한 66만 3천 명임.

- 농가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하고, 전분기대비 18.3% 증가한 190만 1천명임.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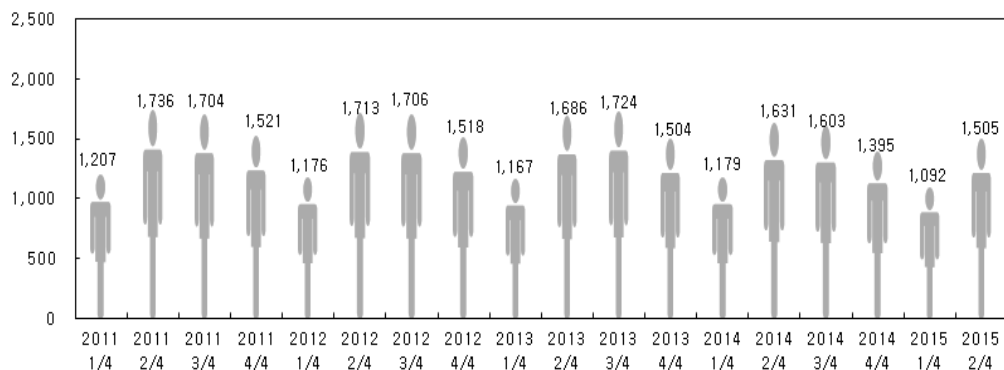
단위: 천명

		2014	2015		증감률(%)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5,790	25,267	26,098	1.2	3.3
	(계절조정)	25,456	25,903	25,760	1.8	0.0
	농림어업	1,631	1,092	1,505	-7.7	37.8
	(계절조정)	1,478	1,391	1,362	-7.8	-2.1
	남성	905	685	842	-7.0	22.9
	여성	727	407	663	-8.8	62.9
	농가	2,090	1,607	1,901	-9.0	18.3
	농가남성	1,154	955	1,062	-8.0	11.2
	농가여성	936	652	839	-10.4	28.7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5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났으나, 2011년 2/4분기 173만 6천명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물량이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함. 수출물량은 95만 5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물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9% 감소하였으나, 임산물은 16.0%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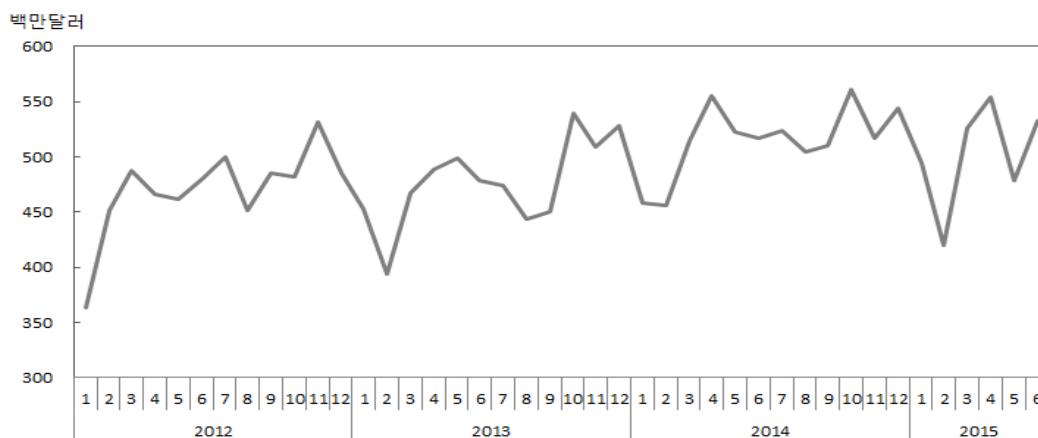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49	1,429	935	1,595	792	1,440	955	1,565	2.1	-1.9
	농산물	644	1,210	735	1,325	629	1,248	728	1,334	-0.9	0.6
	－곡류	7	7	8	7	10	8	16	9	113.4	19.7
	－과실류	32	55	35	50	31	55	28	42	-19.6	-15.9
	－채소류	25	83	32	83	20	78	24	73	-25.7	-12.6
	축산물	25	94	31	114	28	120	30	123	-1.9	8.1
	－포유육류	1	3	1	4	2	13	1	6	34.5	76.1
	－가금육류	3	5	7	11	6	11	8	12	9.8	10.6
	－낙농품	9	32	9	32	8	39	9	41	2.0	28.7
	임산물	180	125	169	156	134	73	196	109	16.0	-30.4
수 산 물		180	485	170	520	139	429	193	529	13.6	1.7
전 체		1,029	1,914	1,105	2,115	930	1,869	1,148	2,095	3.9	-1.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5억 6,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함.
 - 수출물량과 달리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6%, 8.1%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30.4% 감소함.

- 농산물에서 곡류는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데 반해 과실류는 15.9%, 채소류는 12.6% 감소함. 과실류에서는 사과(-30.5%) 등이 감소하였고, 채소류에서는 배추(-34.5%), 양파(-77.9%) 등이 감소함.
- 축산물에서 포유가축육류는 76.1%, 가금육류는 10.6%, 낙농품은 28.7% 증가함. 특히 쇠고기의 경우 131만 달러에서 405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 2015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3.0% 많고, 전월에 비해서는 11.3%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6월까지 누계기준으로 주요 수출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제 1 수출국은 일본임. 그러나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물량과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1%, 9.4% 감소함.
- 이는 지속되는 엔저현상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⁴⁾으로 인해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화훼류의 수출물량과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42.3%, 41.5% 감소하였기 때문임.

4) 무역협회, 무역뉴스, “aT, 오사카에서 韓)농식품 상담회...대일 수출 재도약 모색”, 15.07.16
 무역협회, 무역뉴스, “엔화 폭락 화훼농가 직격탄...정부 속수무책”, 15.05.20

주요 수출국별 농림축산물 수출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6월		2015. 1~6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일본	전체	555	1,027	505	930	-9.1	-9.4
	신선	56	137	39	110	-30.4	-19.6
	-채소류	24	62	18	53	-23.4	-14.4
	-화훼류	2	10	0.9	6	-42.3	-41.5
	-과실류	4	11	3	8	-16.5	-32.0
중국	전체	447	609	492	661	10.0	8.4
	신선	35	75	39	78	11.7	4.9
	-채소류	0.5	6	0.5	7	11.1	13.0
	-과실류	18	29	23	39	33.9	31.6
	-돈육	0.06	0.5	0.1	1	100.8	136.2
미국	전체	127	392	133	411	5.0	4.8
	신선	11	37	12	40	8.0	6.9
	-채소류	2	10	2	8	0.2	-20.8
	-과실류	4	8	4	8	9.3	4.6
	-버섯류	2	4	2	4	2.8	4.9
아세안	전체	367	681	389	660	5.9	-3.1
	신선	32	152	24	91	-24.7	-39.8
	-채소류	2	16	3	18	21.8	9.5
	-과실류	3	5	4	7	16.7	23.5
	-버섯류	2	5	2	3	-34.4	-26.5
	-가금육	9	13	13	18	47.2	38.7
EU	전체	99	218	108	242	9.3	10.6
	신선	7	15	4	13	-37.9	-10.1
	-채소류	0.2	1	0.2	1	10.6	17.3
	-과실류	5	4	2	2	-60.1	-50.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⁵⁾.

- 전산업 지수는 98.4를 기록한 가운데 농수산물은 88.6으로 조사됨.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농수산물의 경우 일본의 양적완화 유지와 엔저현상으로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임.

3.2. 수입 동향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234만 7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함.
 - 농산물과 임산물의 증감률은 미미하나 축산물은 13.4% 증가함. 축산물 중에서는 특히 돼지고기가 36.5%로 크게 증가함.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9억 4,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함.
 - 농산물은 두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하였고, 임산물 역시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포유육류 증가에 따라 4.9% 증가함.
- 2015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2.6% 감소하고, 전월에 비해서는 2.0% 증가함.
- 2015년 6월까지 누계기준으로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154억 5천만 달러임⁶⁾.
 - 농산물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92억 7천만 달러임.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실류는 오렌지, 체리, 망고 등 수입과일의 증가로 수입액이 6.5% 증가하였고, 채소류는 고추, 호박 등의 증가로 8.1% 증가함. 반면 곡류는 곡류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 수입액이 10% 이상 감소하여 5.7% 감소함.
 - 축산물은 28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함.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쇠고기 등의 포유육류 수입액이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임.

5) 한국무역협회, 2015, 「2015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5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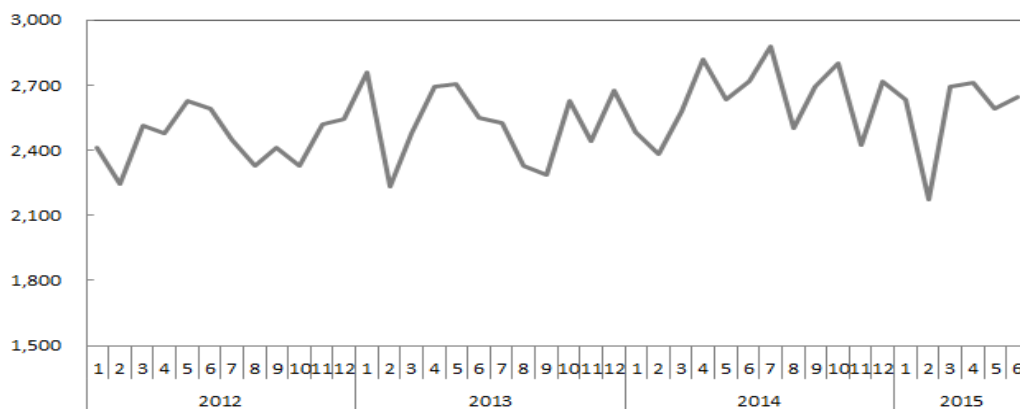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881	7,448	12,194	8,167	11,567	7,503	12,347	7,946	1.6	-2.7
	농 산 물	8,182	4,606	8,191	5,012	7,920	4,486	8,218	4,783	0.3	-4.6
	－곡류	3,708	1,025	3,723	1,059	3,663	983	3,721	981	0.0	-7.3
	－서류	181	70	152	70	143	69	131	69	-13.5	-1.8
	－두류	301	198	382	270	271	155	357	195	-6.4	-27.7
	－과실류	251	413	312	591	261	431	338	654	8.1	10.8
	－채소류	221	192	218	199	238	202	237	214	8.7	7.6
	축 산 물	315	1,249	331	1,357	358	1,456	375	1,423	13.4	4.9
	－포유육류	175	731	170	723	206	935	206	850	21.6	17.6
	－가금육류	33	75	37	85	27	69	29	80	-20.6	-6.1
	－낙농품	47	201	58	248	60	223	58	206	-0.4	-16.6
	임 산 물	3,384	1,593	3,672	1,798	3,289	1,561	3,753	1,740	2.2	-3.2
수 산 물		1,151	1,032	1,205	1,098	1,224	1,143	1,399	1,113	16.1	1.4
전 체		13,032	8,480	13,399	9,265	12,791	8,647	13,745	9,060	2.6	-2.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백만달러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 순수입 동향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139만 2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함.
 -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49만 톤으로 임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물량 자체는 가장 크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0.5%로 가장 작게 증가함.
 - － 축산물의 순수입물량은 34만 5천 톤으로 다른 부류에 비해 물량은 적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15.0%로 가장 크게 증가함.
- 2015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63억 8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함.
 - － 축산물 순수입액은 4.6% 증가한데 비해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6.4%, 0.6% 감소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2/4분기		2015.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259	6,572	11,392	6,381	1.2	-2.9
농 산 물	7,456	3,687	7,490	3,449	0.5	-6.4
축 산 물	300	1,243	345	1,300	15.0	4.6
임 산 물	3,503	1,642	3,557	1,631	1.5	-0.6
수 산 물	1,034	578	1,205	584	16.5	1.1
전 체	12,294	7,149	12,597	6,965	2.5	-2.6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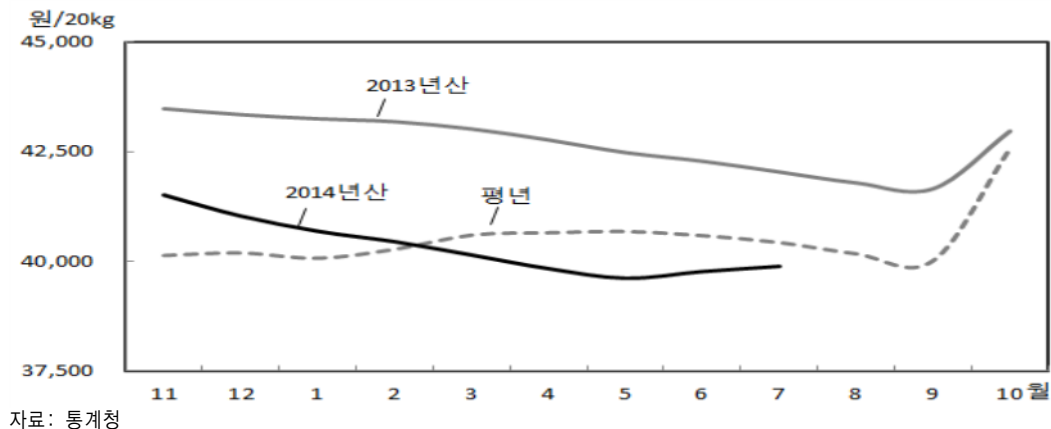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⁷⁾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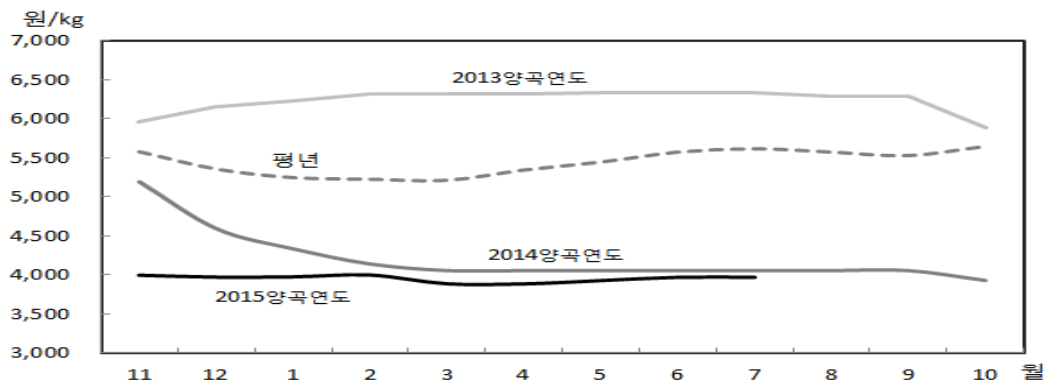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년 연속 풍작으로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지 쌀값은 5월까지 작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세를 지속함.
 - 5월 22일, 정부는 쌀시장 안정을 위해 2014년산 쌀 7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를 실시하였고, 평균 낙찰가격 5만 3,253원(벼 40kg)에 전량 매입 완료됨.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 (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 (opendoyon@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6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3만 9,769원/20kg으로 추가 시장 격리 이후 약상승세로 전환됨.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3만 9,889원/20kg으로 3/4분기 들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추가 시장격리로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부담이 완화되어 산지 쌀 가격은 강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격리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15 양곡연도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현 시세보다 상승한 4만 750원/20kg 내외로 예상되며, 수확기 가격보다는 2.6%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3월 이후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 소진으로 남아있는 물량은 많지 않으나 산지 콩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4~6월 콩 도매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2015년 6월 국산 콩의 평균 도매가격은 3,971원/kg으로 전년동기대비 2.1%, 평년동기대비 28.8%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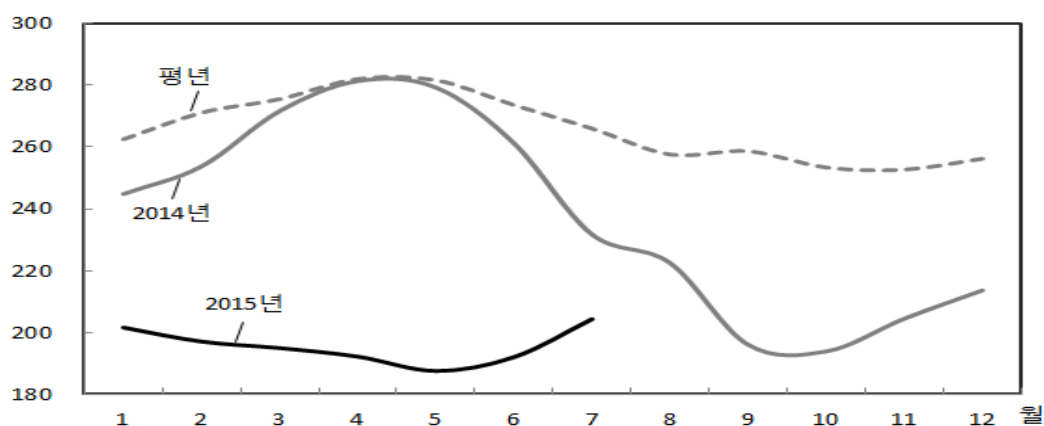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국산 콩의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3,971원/kg으로 전월과 동일함.
- 국산 콩 소비부진으로 산지 거래가 거의 없어 단경기 콩 도매가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6~9월(물량소진 시까지) 2013년산 공공비축용 콩 8,944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물량을 분할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소량씩 시장에 방출하여 국산 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단위: 2000년 1월 = 100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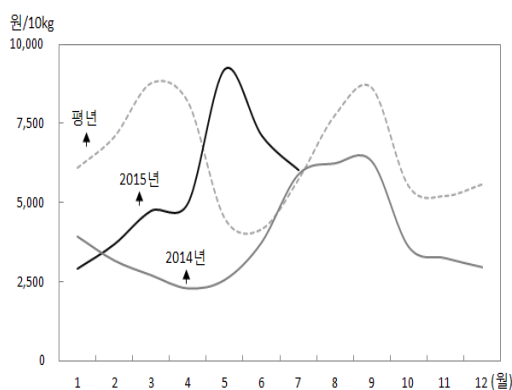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풍부한 공급량, 저유가 및 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밀, 옥수수, 콩, 쌀의 교역량 가중평균)는 전분기대비 3.7% 하락한 190.5임.
 - 밀은 풍부한 공급량 및 달러화 강세,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옥수수와 콩 역시 풍부한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다만, 6월 말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미국의 강우, EU-28과 캐나다의 건조한 날씨 등)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주요 생산국 기상악화로 상승하던 국제곡물 가격은 7월 중순 이후 기상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
 -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 지수는 199.5로 전분기대비 5.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고량 전망치가 평년대비 각각 4.0%, 11.4% 많은 수준임.
 -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지속 전망 등 거시경제지표도 국제 곡물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단, 엘니뇨 지속으로 호주 및 동남아 지역의 가뭄이 심화될 경우 곡물가격의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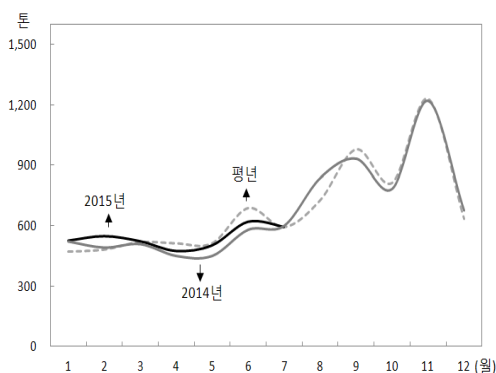
2. 엽근채소⁸⁾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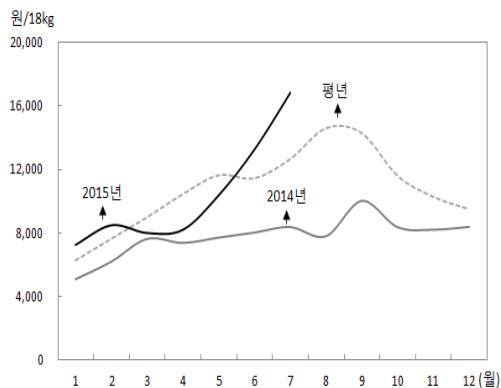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3배 가량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 27% 높은 수준
 - * 봄배추 출하량 감소 이유: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면적이 감소하였고, 가뭄 지속으로 단수도 감소
 - 2/4분기 월별 가격은 4월 4,985원, 5월 9,206원, 6월 7,110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월에 따른 출하 지연으로 중순에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가격 크게 상승
 - * (2015 2/4분기) 7,100원/10kg, (2014 2/4분기) 2,872원, (평년 2/4분기) 5,605원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10% 내외 증가할 전망
 -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4,977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진용(cjin805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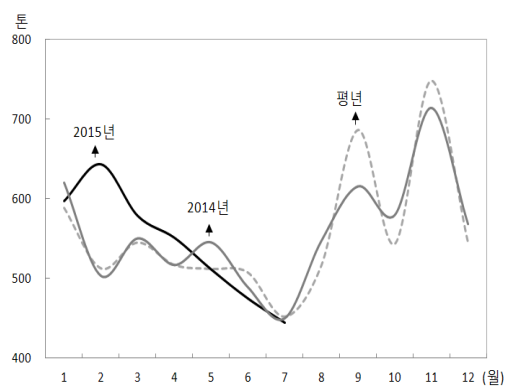
- * 고랭지배추 단수는 최근 적절한 강우로 작황이 회복되면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15% 내외 증가한 10a당 3,951kg으로 전망됨.
- * 그러나 최근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향후 단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배추 전체 출하량은 평년보다 5~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8~9월 배추 가격은 최근 적절한 강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그러나 8~9월 기상 변화(고온 및 태풍)에 따른 고랭지배추 단수 변화로 가격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5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고 금년 정식기 가격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 2% 감소한 14,392ha로 조사됨.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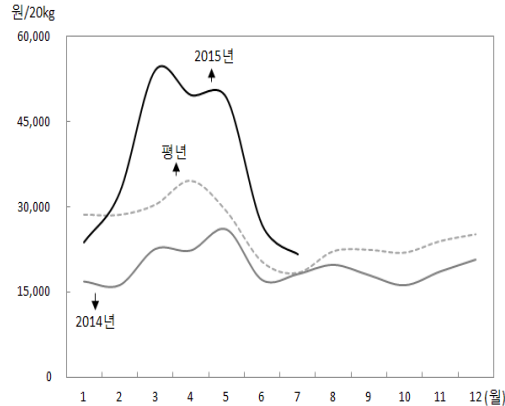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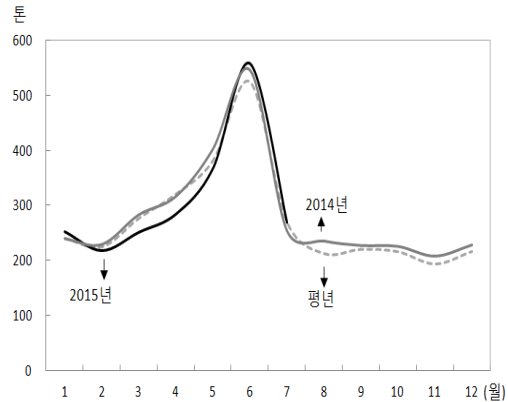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8% 높지만 평년보다는 5% 낮은 수준이었음.
 -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4년 2/4분기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월동무 및 봄무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함. 하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평년 대비 다소 하락함.
 - * (4월) 8,230원/18kg, (5월) 10,397원, (6월) 13,272원
 - * (2015 2/4분기) 10,633원/18kg, (2014 2/4분기) 7,697원, (평년 2/4분기) 11,165원
- 3/4분기 전망
 - 고랭지무 생산량 작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6% 증가할 전망
 - *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2,513ha로 작년보다 4% 증가하지만 평년보다는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 고랭지무 생산량은 추정단수를 적용할 경우, 약 7만 3천 톤으로 작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무 출하량은 고랭지무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5~6% 적을 것으로 전망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 2015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2년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5%, 평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이 3%, 충청과 영남은 5%, 호남은 7% 감소하고 대체작물은 콩, 깨 등으로 조사됨.

2.3. 감자

수미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자(수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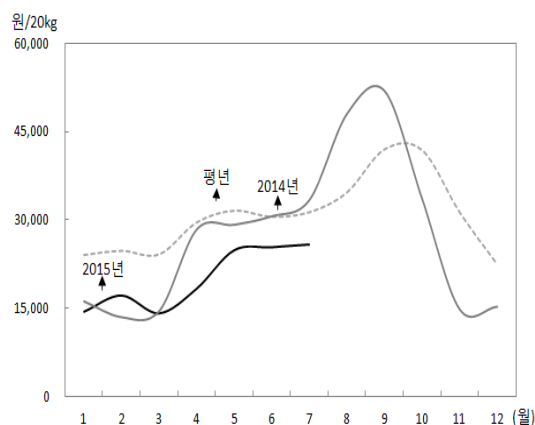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1,768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91%, 49% 높았음.
 - 이는 시설봄감자와 노지봄감자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수미 (2015 2/4분기) 41,768원/20kg, (2014 2/4분기) 21,805원, (평년 2/4분기) 28,013원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 작년과 비슷하지만 평년보다는 5% 감소한 11만 톤 전망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6% 증가하지만 평년보다는 8% 감소한 3,458ha로 추정됨.
* 고랭지감자 단수는 가뭄피해로 작년보다 13%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4% 증가한 3,166kg/10a로 전망됨.
 -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육지부는 증가하지만 제주가 줄어 작년보다 2% 감소 전망
 - 3/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노지봄감자 저장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과 비슷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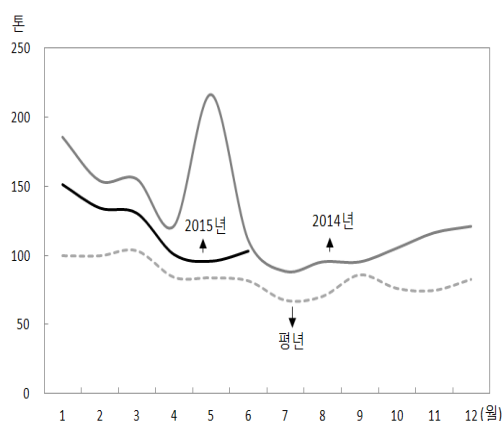
- 2015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 2015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제주지역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3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가을감자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은 콩, 양배추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4% 감소함.

2.4.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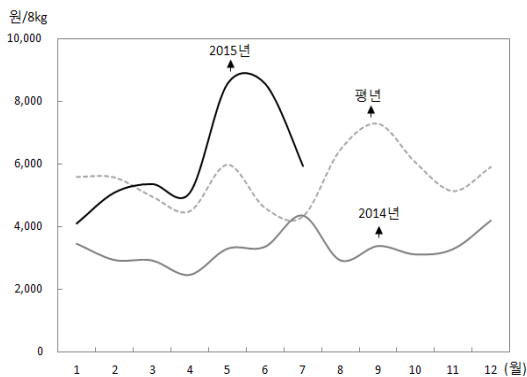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2%, 25% 하락한 수준이었음.
 - * (2015년 2/4분기) 22,825원/20kg, (2014년 2/4분기) 29,401원, (평년 2/4분기) 30,558원
 - * 봄당근 가격 하락 이유: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면적이 늘면서 출하량이 증가 하였고, 가뭄 지속으로 상품성이 저하되었기 때문
 - 2/4분기 당근 20kg당 월별 평균 도매가격은 4월 18,278원, 5월 24,838원, 6월 25,359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월은 시설봄당근 출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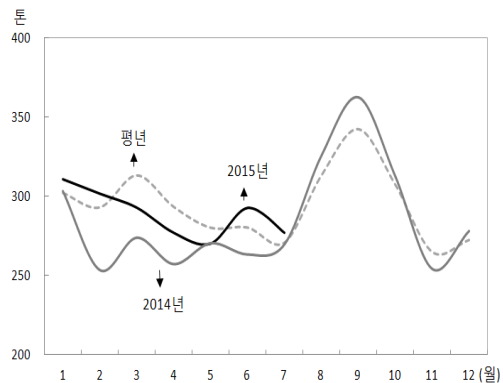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최근 고온 및 가뭄으로 인해 고랭지당근 생육이 10월로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봄당근 저장량이 작년보다 16%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 2015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 2015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파종기 가격 약세와 금년 고랭지 당근 출하 지연에 따른 물량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 1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2.5.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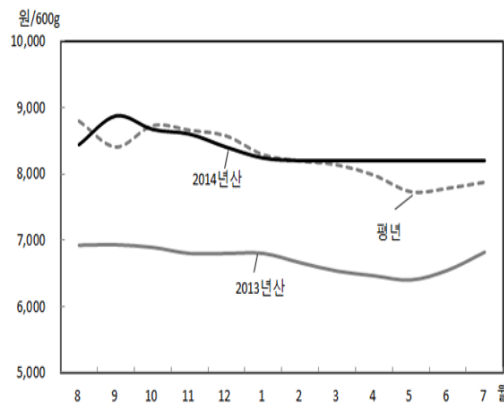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2배 가량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도 47% 높은 수준이었음.

- *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 이유: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겨울철 저온 지속으로 단수 감소
- 2/4분기 월별 가격은 4월 5,066원, 5월 8,553원, 6월 8,543원으로 나타났음.
 - * (2015년 2/4분기) 7,387원/8kg, (2014년 2/4분기) 3,033원, (평년 2/4분기) 5,021원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20% 내외 증가할 전망
 -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1,989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고랭지양배추 단수는 최근 적절한 강우로 작황이 회복되었지만 초기생육 부진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4% 내외 감소한 10a당 4,026kg으로 전망됨.
 - 따라서 3/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을 전망
- 2015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5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배추, 감자 등의 농가가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배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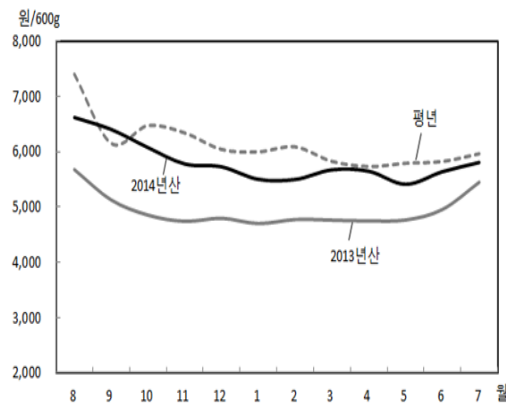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⁹⁾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09년 8월~201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5년 2/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7% 높은 8,20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5% 높은 5,570원 수준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8,200원/600g, (전년) 6,470원, (평년) 7,830원

* 산지가격: (금년) 5,570원/600g, (전년) 4,820원, (평년) 5,780원

- 이는 2014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산 건고추 재고량이 많아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5년산 재배면적은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014년산보다 4%, 평년보다는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배방식별로는 노지(멀칭·터널)재배가 전년보다 5% 감소하나, 비가림(하우스)재배는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경기·강원	-1.3	2.2	-0.7
영 남	-6.2	3.8	-5.9
호 남	-3.4	1.6	-2.7
충 청	-8.7	3.2	-7.3
전 체	-5.0	2.7	-4.3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16일 표본농가 조사치

- 7월 15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현재까지 고추 생육 상황은 전년동기대비 ‘ 좋음 ’ 27%, ‘ 비슷 ’ 49%, ‘ 나쁨 ’ 24%로 조사되었음.

* 전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영남은 ‘ 좋음 ’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정식 이후 지속된 가뭄으로 경기·강원, 호남(전남)은 ‘ 나쁨 ’이 각각 31%, 26%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5년산 고추 전년대비 생육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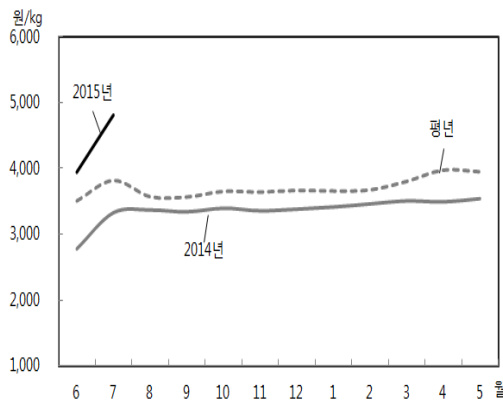
	좋음	비슷	나쁨
경기·강원	23.6	45.2	31.1
영 남	45.6	39.3	15.1
호 남	29.1	45.3	25.6
충 청	14.9	61.9	23.2
전 체	27.0	49.3	23.7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15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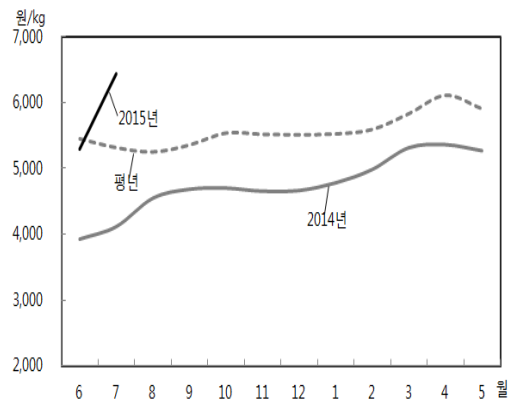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동월대비 각각 20%, 4% 높은 8,200원임. 건고추(화건) 상품 600g당 7월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7%, 전월보다는 3% 높은 5,810원임.
 - 재배면적 감소로 2015년산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어 건고추 3/4분기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3.2. 마 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0년 6월~2015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난지형 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4~2015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33% 높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 간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8% 높으나 2013~2014년산 이월재고가 많아 평년보다는 6% 낮음.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3,658원/kg, (전년) 2,754원/kg, (평년) 3,703원/kg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5,307원/kg, (전년) 3,852원/kg, (평년) 5,662원/kg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7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높은 수준
 - 마늘 생산량과 입고량이 적어 8~9월 마늘 가격은 평년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 TRQ 등 수입량 증가, 저장가공업체의 입고의향 감소 영향으로 8~9월 마늘 가격은 7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입고량

2015년산	2014년산	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85,517	105,354	107,000	-18.8	-20.1

주: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정부와 농협 비축수매 물량을 포함한 것이며, 평년 입고량은 냉장협회 기준 월별 소요량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5년산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19%, 20% 감소한 8만 8,500톤 내외 전망
- 난지형 남도종 입고가격은 평균 3,400~3,500원, 대서종은 평균 4,300원 내외

* 2015년 마늘 TRQ 계획량 14,467톤 중 7월까지 7,467톤이 이행 및 낙찰되었음. 4만 1천 톤이 추가 증량되어 연내에 도입 가능한 TRQ 물량은 총 4만 8천 톤임.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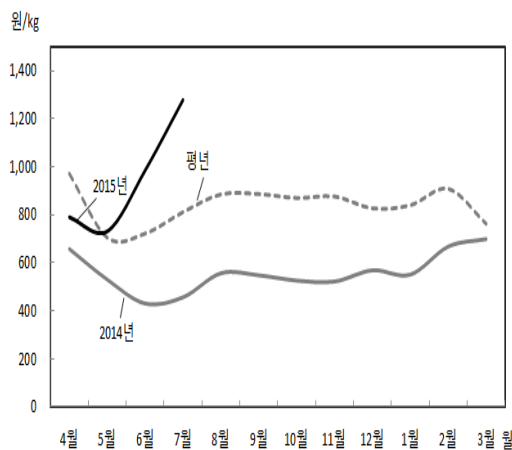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3.1	0.0	5.4	-	2.5
난지	10.9	5.8	9.2	4.1	7.2
전체	2.8	5.7	7.7	4.1	6.1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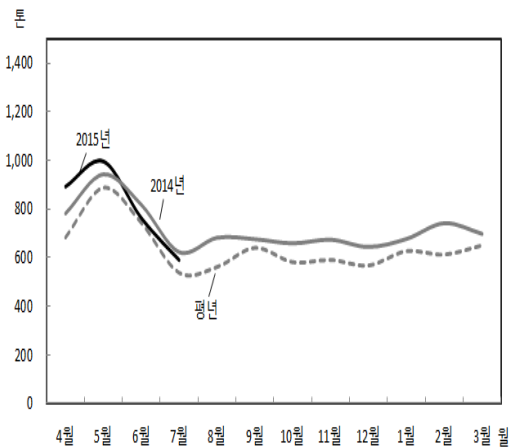
-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은 2015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6% 증가
 - * 충청은 한지형 마늘 재배의향이 감소한 반면, 난지형 대서종 재배의향이 크게 증가. 호남과 제주의 난지형 남도종 재배의향이 증가하나 종자용 마늘 가격이 높아 재배의향면적 증가 수준은 제한적일 전망. 영남은 난지형 대서종을 중심으로 재배의향이 증가
 - * 마늘 재배농가들의 관망세가 지속되어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은 향후 마늘 가격과 대체작목 가격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4월~2015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양파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55%, 5% 높은 836원임.
 - * (4월) 790원/kg, (5월) 731원, (6월) 985원
 - * (2015년 2/4분기) 836원/kg, (2014년 2/4분기) 539원, (평년 2/4분기) 800원
- 2015년 양파 공급 동향
 - 통계청 발표결과(7. 24일), 2015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구비대기 고온과

가뭄으로 평년보다 6% 감소한 6,027kg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평년보다 각각 23% 감소한 109만 3,932톤임.

2015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	18,015	6,072	1,093,932
평년	21,797	6,485	1,413,590
증감률	-17.4	-6.4	-22.6

자료: 통계청.

- 2015년산 양파의 저온저장고 입고량은 55만 6천 톤으로 평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입고가격은 6월 중순 이전에는 kg당 600~700원이었으나, 중순 이후에는 750~850원으로 상승하였음. 입고가격을 고려한 도매 시장 손익분기가격은 1,100~1,400원인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산 양파 입고량은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입고율(=입고량/생산량)은 평년(49.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입고율도 높아 가져장 양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양파 입고량, 입고가격

단위: 톤, 원/kg, %

연산	입고량	입고가격
2015	556,426	800
평년	634,576	597
증감률	-12.3	34.1

자료: 통계청.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도매가격은 공급량 부족으로 평년(800원/kg)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으로 농협계약재배물량 출하확대, TRQ 도입이 추진되나

국내산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8월에 농협 계약재배물량 출하량 확대(100톤/일→150톤), TRQ(실수요자배정) 1만 7천 톤 도입

2016년산 조생종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전남	제주	전체
12.2	15.4	13.1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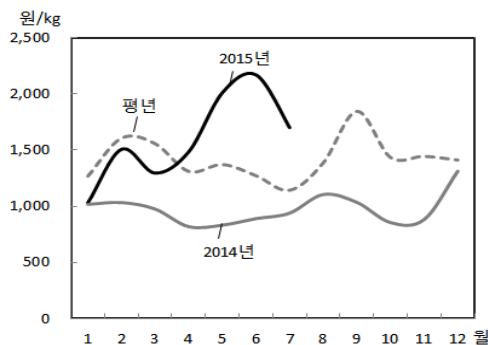
- 2015년산 양파 가격 강세로 내년산 재배의향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생종 양파의 재배의향은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내년 3월 가격 상승을 예상한 일부 산지유통인들을 중심으로 조생종 양파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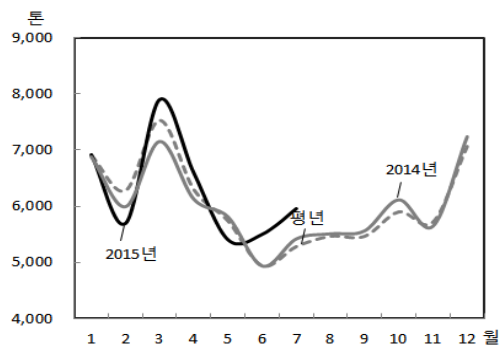
*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의향도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아직 재배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의 비중이 높아 양파 재배의향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1월~201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890원(중품 1,664원)으로 전년과 평년대비 각각 123%, 43% 높음
 - * (금년) 1,890원/kg, (전년) 846원, (평년) 1,318원
 - * (4월) 1,486원/kg, (5월) 2,012원, (6월) 2,171원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신안군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출하가 빠르게 이루어져 전년보다 출하 종료시기가 앞당겨짐. 따라서 겨울대파 출하 막바지인 4~5월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형성됨.
 - 겨울대파 출하 종료 이후 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설대파와 충청, 전북지역의 노지 봄대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나,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극심한 가뭄으로 봄대파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4~6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크게 상승함.
 - 국내산 대파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4~6월 대파 총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대비 각각 9%, 2% 증가한 14,129톤임.
 - * (금년) 14,129톤, (전년) 12,993톤, (평년) 13,809톤
 - * (4월) 4,436톤, (5월) 4,652톤, (6월) 5,041톤
 - 국내산과 수입산 대파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 * 국내산-수입산 가격 차이: (4월) 886원, (5월) 938원, (6월) 943원
 - * 신선대파 수입량: (금년) 1,139톤, (전년) 227톤, (평년) 752톤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는 여름, 가을 노지대파가 혼재 출하되는 시기로 강원 평창군, 경기 안성, 이천, 여주 등 노지대파 주산지에서 출하될 예정임.
 - 전년 대파가격 하락으로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 재배면적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됨.
 - 생육 초기 고온과 가뭄으로 고자리파리 발병률이 증가하여 결주가 증가함. 또한 생육이 늦어져 8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가뭄이 해소되면서 작황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단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 전망임.

- 8월 출하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7월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됨. 그러나 성출하가 이루어지는 9~10월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 시군별 작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장마 이후 고온으로 출하 시 상품성이 좋지 않은 중하품 출하량이 증가하여 상품과 중품 간 가격 차이는 전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 금년 국내산 대파가격 상승으로 3/4분기 중국산 대파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산동성 생산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국내산 대파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량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2015년 대파 정식면적 및 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금년 봄(3~6)에 정식된 여름·가을·겨울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여름·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은 감자, 당근, 무 등으로 작목이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여름·겨울대파가 출하되는 7~11월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대파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봄 시설대파와 노지대파 출하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파 재정식이 이루어지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12월~내년 2월 대파 출하량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대파 정식면적 및 의향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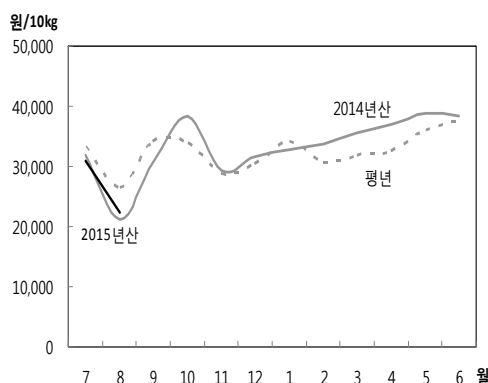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3~6월 정식면적	-14.1	-7.3	-3.0	-4.1	-7.0
8~10월 정식의향	5.2	2.4	6.6	5.4	5.6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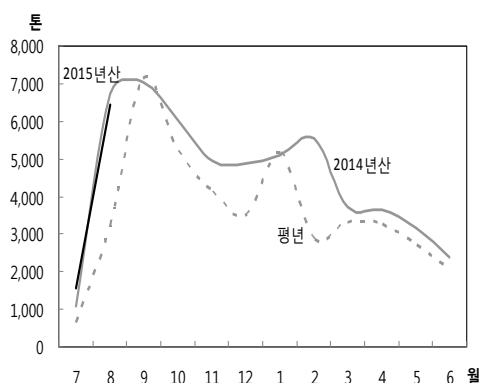
4. 과일¹⁰⁾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1)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가격은 6일까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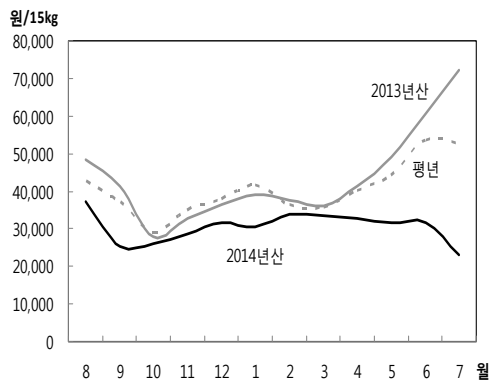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저장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4% 높았음. 이는 2014년산 사과 저장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12% 적었기 때문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햇사과 쓰가루 도매가격은 출하시기가 전년보다 7~10일 늦어져 반입량이 다소 적었음에도 증소과 물량이 많아 전년보다 3%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1천원이었음.
 - 8월 쓰가루 출하량은 생산량이 증가한데다, 출하시기가 늦춰져 전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됨.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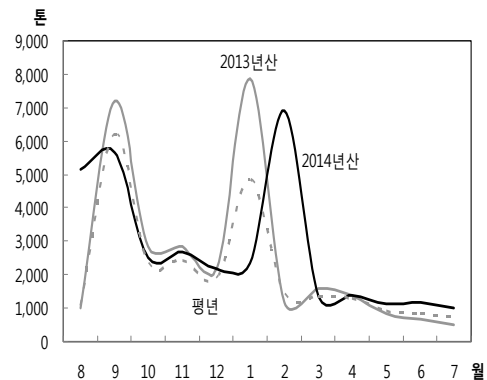
- 올해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사과 출하량은 홍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출하가 가능하여 전년보다 10% 많은 5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2015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착과수도 많아 전년보다 8% 증가한 51만 3천 톤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쓰가루 생산량이 전년보다 3% 많고, 홍로 6%, 후지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36% 낮았음. 이는 2014년산 배 저장량이 많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28%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햇배 출하 전에 저장배 잔여물량을 소진하려고 반입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68%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3천원이었음.

- 8월 원황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적지만, 평년보다는 11% 많은 6만 4천 톤으로 전망됨.

● 2015년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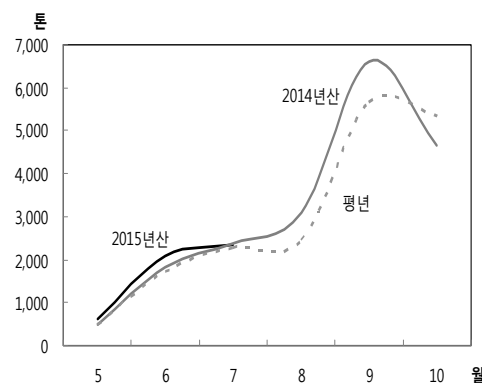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26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 면적이 전년보다 4%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온피해로 인한 착과불량과 대과 감소로 전년보다 단수가 8% 적을 것으로 예상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6,030원으로 전년보다 9% 낮았음. 이는 생산량이 많아 출하량이 전년보다 16%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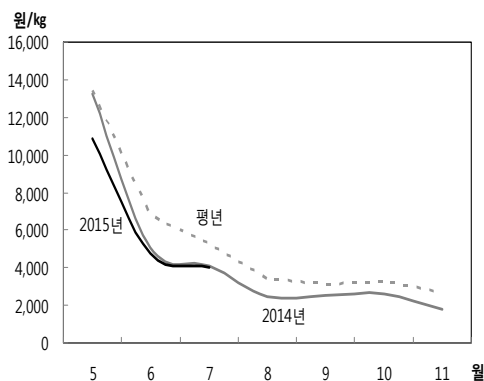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4,620원으로 전년(4,710원)보다 낮았음. 이는 직거래(택배·도내소비)소비가 부진해짐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13% 증가했기 때문임.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4% 감소하나, 9월 이후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의 빠른 추석(9.8.)으로 인해 8월 하순부터 추석용 출하가 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 추석이 늦어(9.27.) 9월 중순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5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6% 감소한 53만 1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감소(통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 과원들의 해저리 현상이 심해 단수가 전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4. 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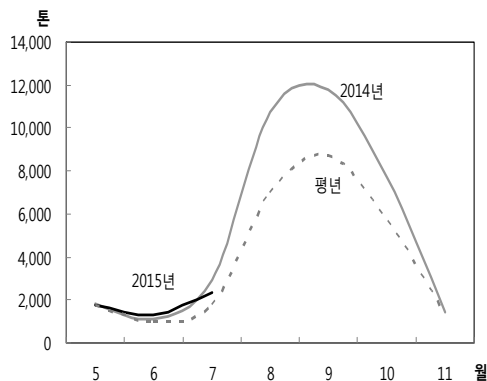
- 2015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4% 준데다(통계청), 단수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8% 감소한 17만 9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지역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지역은 단수는 전년대비 1% 감소에 그치겠으나, 성목면적 감소폭이 커(9%)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로는 부유생산량이 전년보다 8% 감소하고 서촌과 차량은 각각 7%,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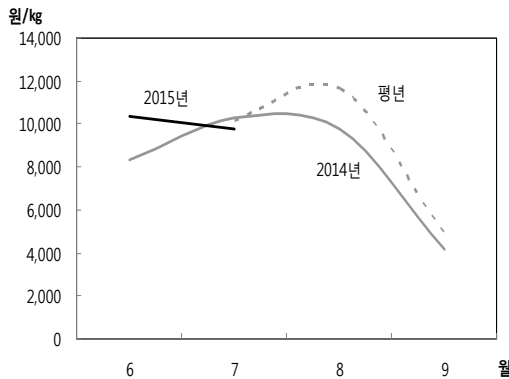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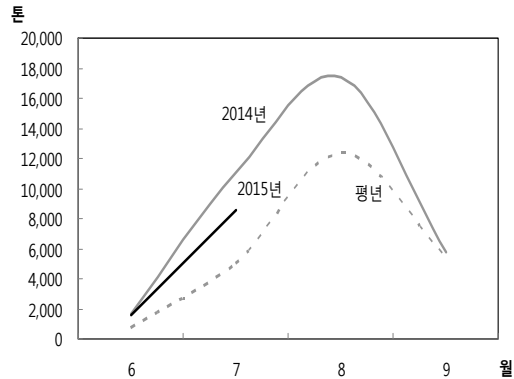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텔라웨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5월에는 3만 8천원, 6월은 1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 2% 낮았음. 국내산 포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었지만, 수입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포도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캠벨얼리가 8천원, 거봉은 1만 1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음. 반입량은 전년보다 20% 가량 적었지만, 포도알 크기가 작고 산도가 높아 가격이 높지 않았음.
 - 8월 포도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시설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지만, 노지포도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5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8만 톤으로 전망됨. 시설포도 생산량은 작황호조에도 불구하고 성목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노지포도 생산량은 작황호조로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0~14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 7월 백도, 8월 천중도백도, 9월 엘버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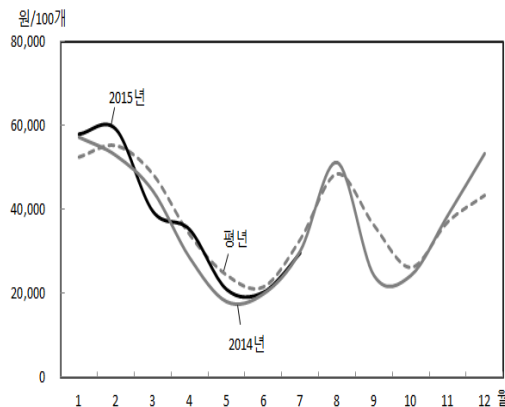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복숭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개화기 저온피해로 천도계 조생종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24% 높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1천원이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도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많아 상품 4.5kg 상자에 1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2% 낮았음.
 - 7월 선프레 도매가격은 천도계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적어 전년보다 3%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2천원이었음.
 - 8월 전체 출하량은 천도계 생산량이 감소하나, 유모계의 증가로 전년보다 5%, 9월 이후에도 3%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생산량 전망
 - 복숭아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4% 증가한 21만 8천 톤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10% 증가(통계청)하였으나, 개화기 저온피해와 생육기 가뭄 영향으로 단수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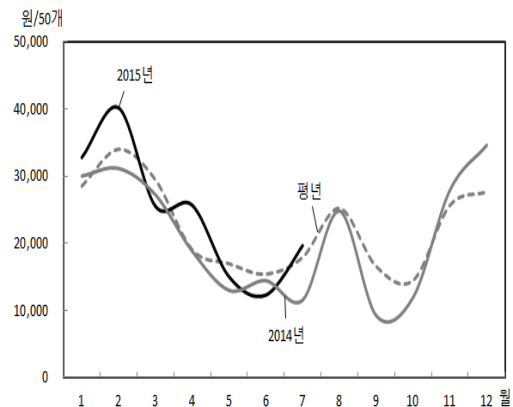
5. 과채¹¹⁾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3만 5,300원, 5월 2만 1천원, 6월 2만 3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5,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높았고, 평년보다 4% 낮았음.
 - － 2/4분기는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의 신규재배규모 확대에 의해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계속된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과 예년보다 빠른 고온 현상으로 생육 부진 및 생리장애가 발생하여 반입량은 작년대비 1% 적었음.
 -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4월 2만 5,700원, 5월 1만 5천원, 6월 1만 2,3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7,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동기보다 각각 15%, 3%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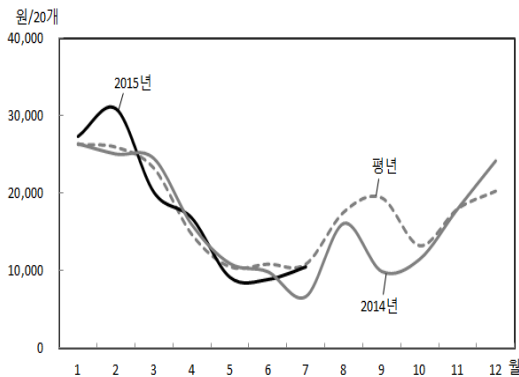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병훈(postino@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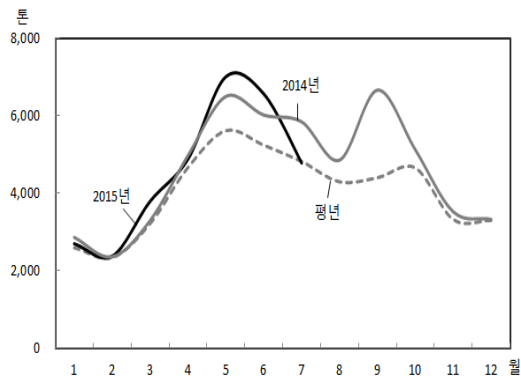
- 7월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강원지역의 강풍 및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영향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장마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작년보다 2% 낮은 상품 100개에 2만 9,700원이었음. 8월 출하량은 주산지인 고령지지역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작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됨. 9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7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작년보다 70% 높은 상품 50개에 1만 9,600원이었음. 8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남 천안과 진천에서 취청 오이로 품종 전환한 농가가 일부 있으나, 바이러스 발병 등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6,800원, 5월 9,200원, 6월 8,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1,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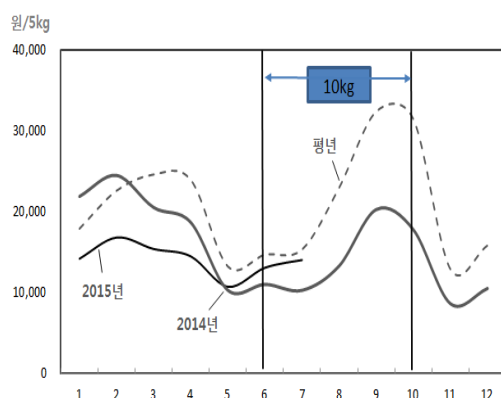
- 4월 주산지인 영남·충청지역에서의 잦은 강우와 큰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5월에 기상여건이 회복되고 신규시설 면적이 증가하면서 5월과 6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각각 8%, 9% 증가하였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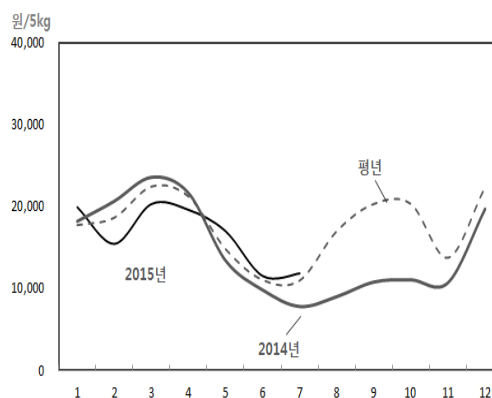
- 7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강원지역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58% 높은 상품 20개에 1만 500원이었음. 8~9월 출하량은 출하가 본격화되는 강원지역 및 경기 일부지역에서 정식기에 발생한 가뭄·고온 영향으로 노균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에 1만 4,500원, 5월 1만 700원, 6월 1만 3,100원 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500원

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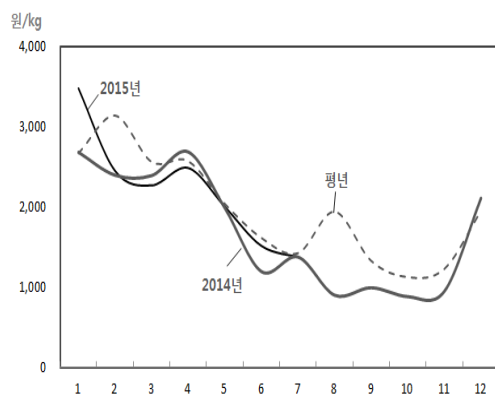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 4~6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3% 적었음. 이는 출하 주산지의 작황이 좋지 못한데다, 6월 출하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임.
- 반입량이 적었음에도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4월에 출하된 일반토마토 품질이 다소 좋지 않았고, 소비 대체품목인 방울토마토 반입량도 많았기 때문임.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1만 9,600원, 5월 1만 7,000원, 6월 1만 1,8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6,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높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4월 1만 4,600원, 5월 1만 2,400원, 6월 9,4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2,1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낮았음.
- 방울토마토 2/4분기 전체 반입량은 작년보다 4% 적었음. 방울토마토 전체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산지에서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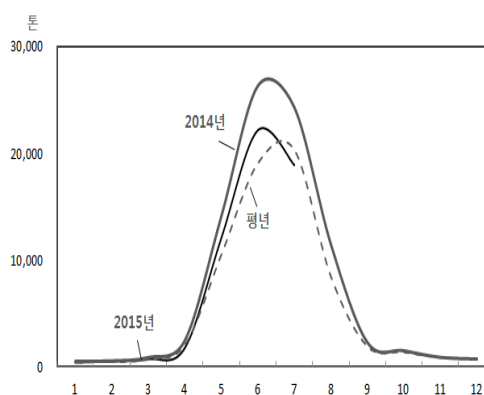
- 7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주 출하지인 강원 철원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기상여건이 토마토 생육에 좋지 못해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36%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4,000원이었음.
- 8~9월 출하량은 정식면적이 감소한 강원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져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7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52%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1,800원이었음.
- 7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은 많았으나,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작년보다 4% 높은 3kg 상자에 8,500원이었음.
- 8~9월 품종별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강원·경기·충청지역에서 원형 재배농가가 대추형으로 전환이 많아 원형은 작년보다 감소, 대추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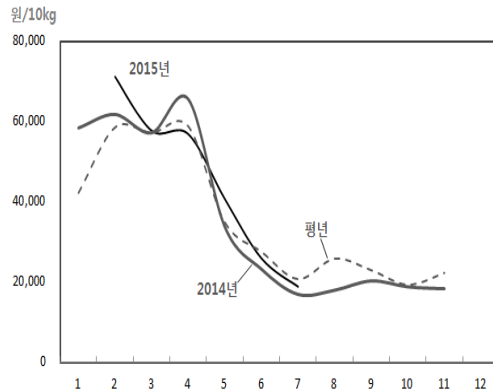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4월 2,500원, 5월 2,000원, 6월 1,5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2% 높았음.
 - 2/4분기 반입량은 작년의 낮은 수박가격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16% 적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4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 8~9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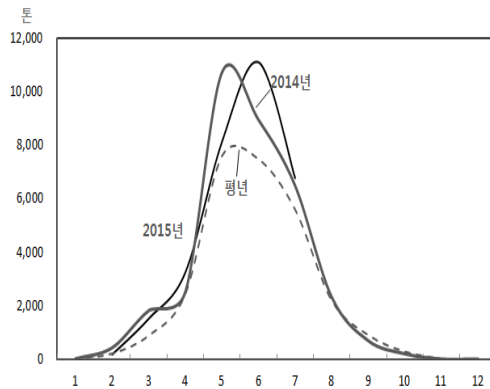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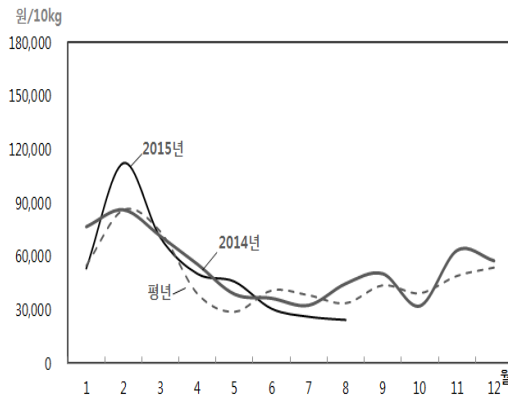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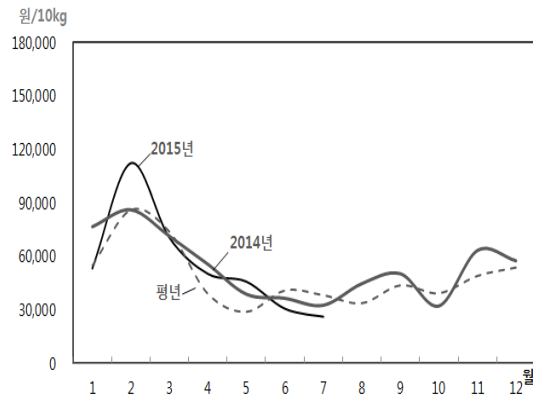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5만 6,900원, 5월 4만 700원, 6월 2만 5,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4만 1,2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 2% 높았음.
 - 2/4분기 반입량은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품종이 개선되어 작년보다 1% 많았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반입량은 6,800톤으로 작년보다 26% 많았으나, 품질향상과 대체 품목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상자에 1만 8,900원으로 작년보다 12% 높았음.
 - 8월 출하량은 전체 참외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 호조와 연장재배 농가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9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감소와 늦은 추석으로 인해 조기 종료하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2/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4만 1,300원, 5월 4만 600원, 6월 3만 1,1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3만 7,7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 낮았음.
 - 4~6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1% 많았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5만 200원, 5월 4만 5,900원, 6월 3만 6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4만 2,2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낮았음.
 - 녹광풋고추 4~6월 반입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한 경남 밀양과 진주에서의 출하가 이어져 작년보다 9% 적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작년보다 21% 낮은 상품 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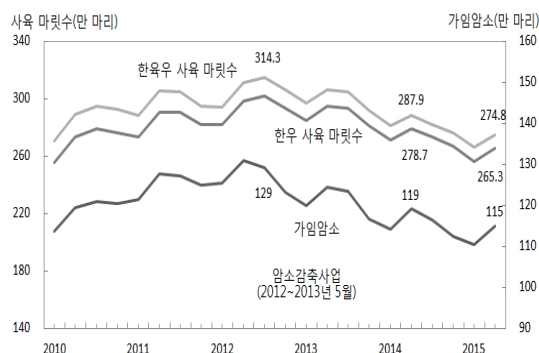
상자에 3만 900원이었음. 7월 녹광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0%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6,200원이었음.

- 8월 청양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8월 녹광풋고추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강원 인제, 홍천에서의 출하가 이어져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는 영·호남지역의 정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양풋고추는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 영향으로 정식면적이 증가하겠으나, 녹광풋고추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오이맛고추로의 품종 전환 등으로 정식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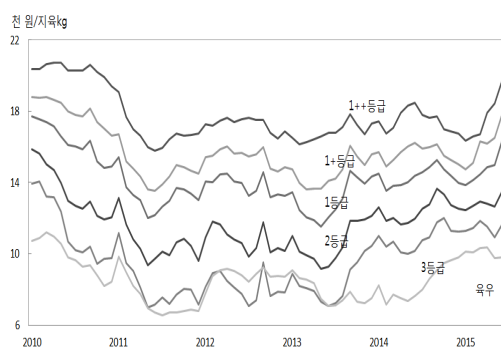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5년 2/4분기 동향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266만 마리)보다 3.3% 증가한 275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88만 마리보다 4.6% 감소).
 -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5만 마리, 한우 265만 마리, 육우 9만 5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5만 마리(2014년 동월 119만 마리)
 - 할인행사와 유통업체 재고 부족으로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 14,150원/지육kg보다 8.7% 상승한 15,385원임(전년 동기 14,078원보다 9.3% 상승).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도축이 줄고 유통업체 재고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6월보다 7.1% 상승한 17,451원이었음(전년 동월 14,597원보다는 19.6% 상승).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정세미(wjdtpl55@krei.re.kr), 이윤경(ykl081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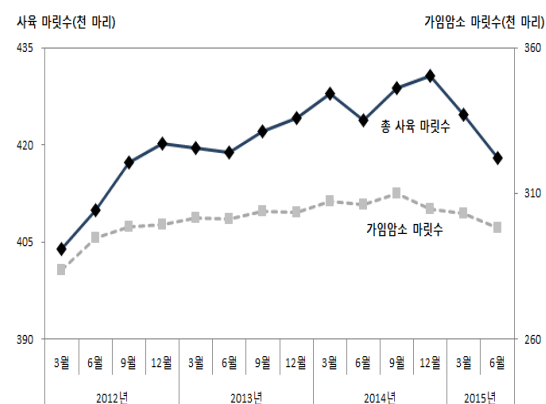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 275만 마리보다 2.2% 감소한 269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82만 마리보다 4.6% 감소).
- 8~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보다 17.0% 상승한 18,000원 내외로 전망됨(전년 동기 15,067원보다 19.5% 상승).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6월(A)	9월(B)	B/A
사육 마릿수	275만 마리	269만 마리	-2.2%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4~6월 15,385원	8~9월 17,000~19,000원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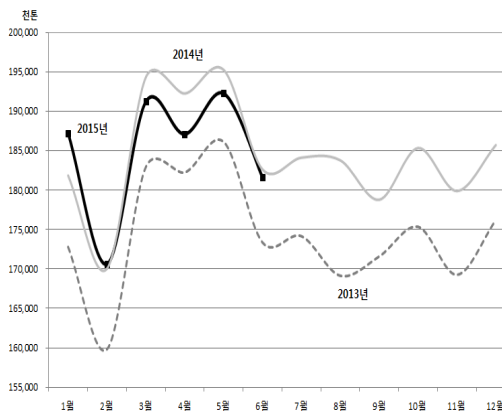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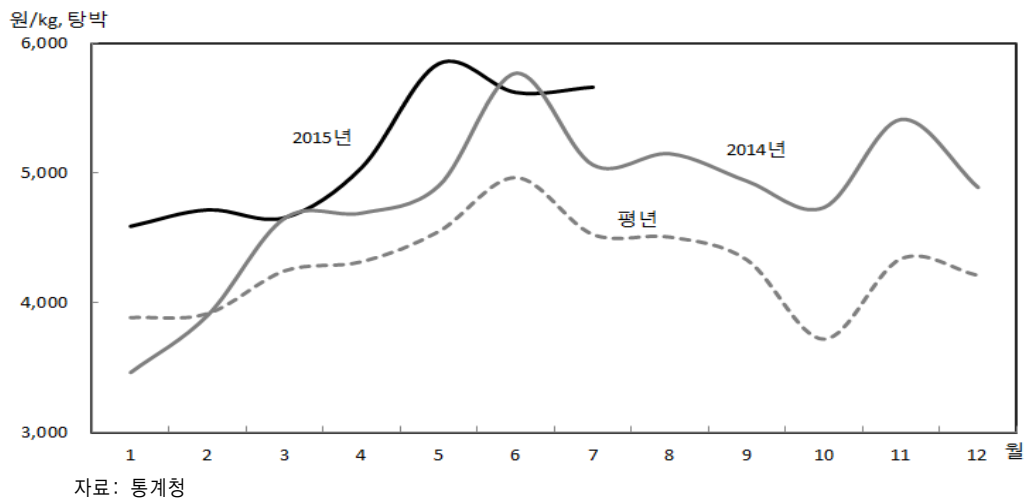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5년 2/4분기 동향
 - 원유생산량 조절을 위한 도축두수의 증가로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 동기대비 1.3% 감소한 41만 8천 마리였음. 가임암소 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29만 8천 마리임.
- 2015년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약 56만 1천 톤임. 반면 2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32만 9천 톤이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0~4.0% 감소한 52만 5천~53만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 2015년 2/4분기 동향
 - 2014년부터 이어진 돼지가격 호조로 후보돈 입식이 증가함. 2015년 6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4% 증가한 94만 8천 마리였음. 모든 사육

마릿수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한 1,002만 마리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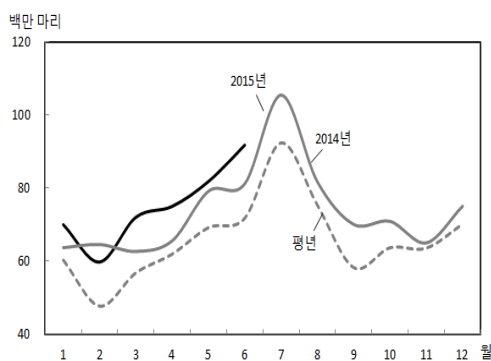
- 할인행사와 유통업체 재고 감소로 2015년 2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1.3% 상승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5,079원이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모돈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385만 마리로 전망됨.
- 8월까지의 휴가철 성수기로 돼지 자육가격은 전년보다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9월부터는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7월 5,664원, 8월 5,200~5,500원, 9월 4,500~4,8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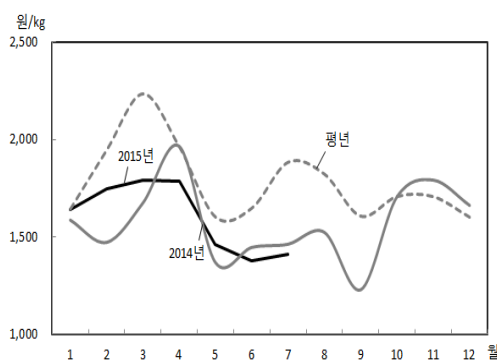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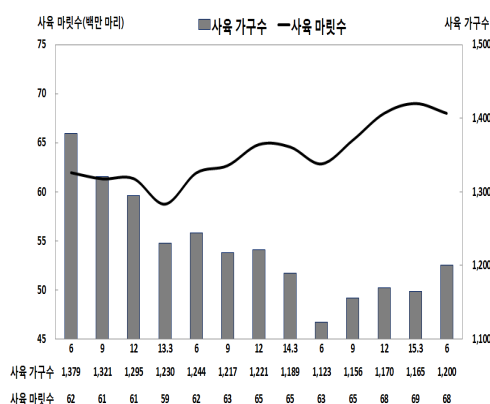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 2015년 2분기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13.5% 증가하였음.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2분기 도계 마릿수는

-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2억 4,869만 마리임.
-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2% 증가한 3만 5,554톤이었음.
 -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2015년 2/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2% 하락한 1,542원/kg임.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3분기 도계 마릿수도 전년 동분기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2억 8,500만 마리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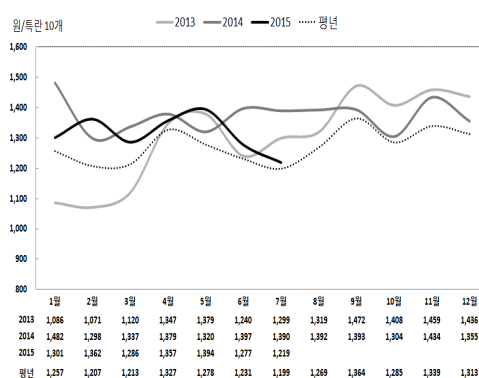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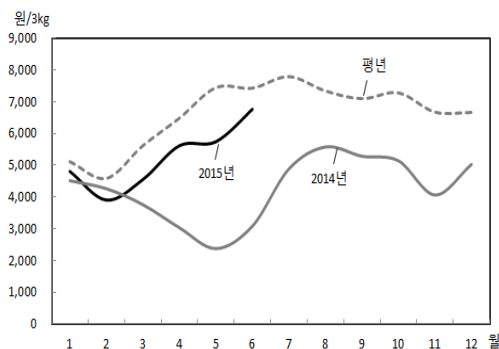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5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AI 발생 전년 대비 감소로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8.0% 증가한 6,791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12.7% 증가한 1,264만 마리였으며,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6.7% 증가한 806만 마리였음.
 - 성계도태 증가 및 산란계군의 증가로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7% 하락(평년 대비 5.0% 상승)한 1,343원(특란 10개)이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산란에 가담할 신계군 증가 및 새로이 진입한 종계 부화장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출하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증가할 전망.
 - 계란 공급량 증가 및 수요 증가 요인 부재로 3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150~1,35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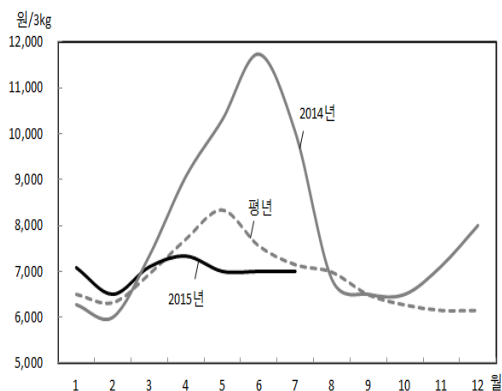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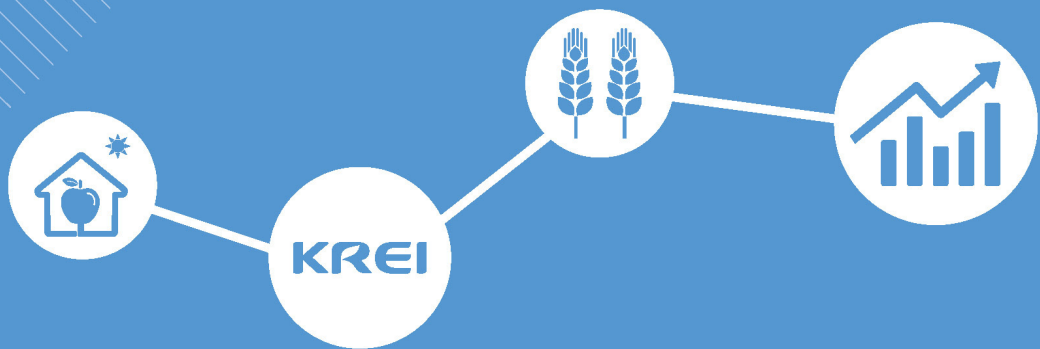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2/4분기 동향
 - 종오리 증가로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77.3% 증가(평년보다 9.5% 증가)한 1,080만 마리였음.
 -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2분기 평균 도압 마릿수는 전년대비 113.3% 증가한 1,812만 마리였음.
 - 오리 도압 마릿수 증가로 오리 생체(3kg)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1.4% 하락한 7,111원이었음.
-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오리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도압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 및 공급량은 전년대비 36~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3분기는 계절적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복수요)이나, 가정 내 오리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6,500~7,5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육류의 수요변화와 소비 확대 방안
- ②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와 대응방안
- ③ 배추 등 채소 가격동향과 소비자의 인식

* 근년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품목의 수급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육류의 수요변화와 소비 확대 방안*

지인배**, 황윤재***, 이형우****, 한봉희*****

1. 최근 육류의 수요변화

- 2014년 들어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에 큰 변화가 나타났음. 2014년 한우의 평균 도매가격은 2013년보다 12%, 돼지는 31% 높게 형성되었으며, 평년¹⁾에 비해서도 각각 7%, 16% 상승하였음.
 - 2014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3년보다 다소 증가(0.3%)하였으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공급과잉시기였던 2013년에 비해 3~4%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어 수요변화가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한우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정육점형 식당과 농축협이 한우플라자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11~2013년 말까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할인행사 또한 한우고기 수요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돼지고기는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구이용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3년 11월부터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이 시행되면서 소시지와 햄 등 육가공품 제조를 위한 돼지고기

* 본고는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변화 요인 분석」을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inba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yjhw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hanbh@krei.re.kr)

1) 최근 5년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건강을 위한 저지방부위 수요증가도 돼지고기 가격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추가적으로 2013년 8월 일본 방사능 유출 사태로 인한 수산물 대체효과와 20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류 간 대체효과도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변화 요인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최근 육류의 수요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육류의 수요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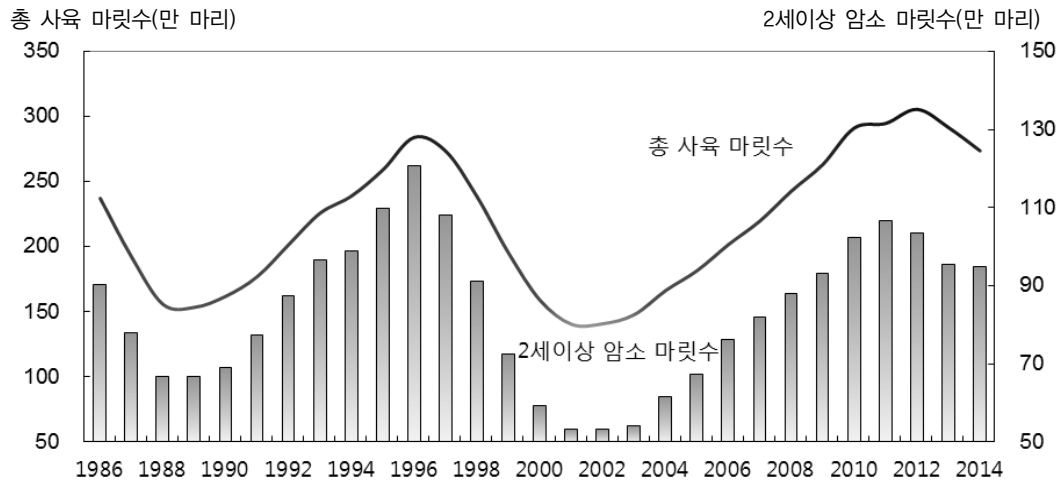
2. 한우와 돼지고기 수급 변화

2.1. 한우고기 수급 및 가격 현황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소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이후, 2002년부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8.0% 증가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306만 마리에 달함. 2013년 이후에는 사육 마릿수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14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3년보다 5.4% 감소한 276만 마리였음(통계청).
 -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06만 마리로 최고점이었음.
 - 2013년 사육 마릿수는 292만 마리, 2014년은 276만 마리였음.
- 구제역 발생²⁾으로 이동제한이 빈번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 사육 마릿수와 도축이 늘면서 2011년 이후 쇠고기 국내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2014년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였으나 거세우 증가로 출하체중이 늘어 2014년 쇠고기 국내 생산량은 2013년보다 0.3% 증가한 26만 1천 톤이었음.
 - 2013년 한육우 도축은 102만 마리, 2014년은 98만 마리였음.

2) 2010년 1월 2~29일, 4월 8일~5월 6일, 2010년 11월 28일~2011년 3월 21일 등 총 세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소 15만 마리, 돼지 332만 마리 등이 살처분 매몰됨.

한육우 사육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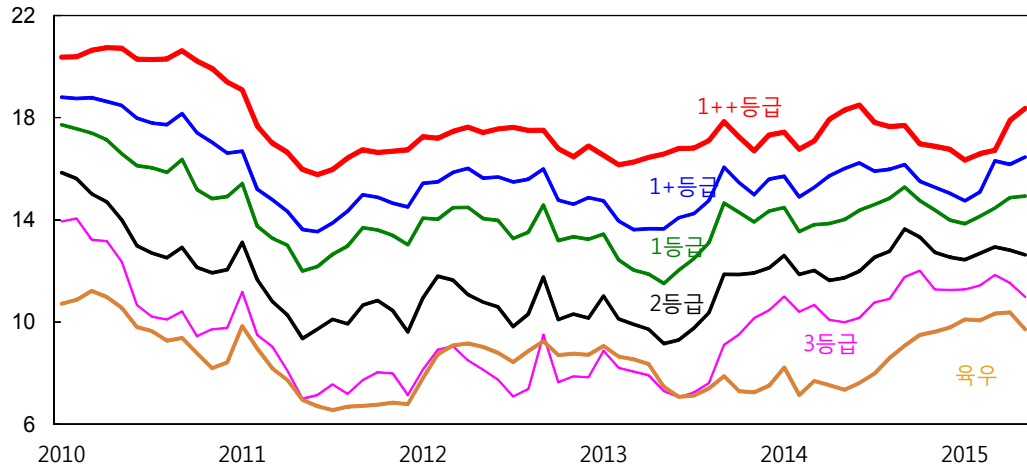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4년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2013년 26만 톤보다 0.4% 증가한 26만 1천 톤이었으며, 평년의 23만 7천 톤보다는 10% 이상 증가하였음. 쇠고기 수입량도 2013년의 25만 7천 톤보다 9.3% 증가한 28만 1천 톤이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쇠고기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우 도매가격은 2013년의 12,814원보다 11.5% 상승한 14,283원이었음. 올해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이 감소하면서 한우 도매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음.
- 2015년 6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14,583원으로 2014년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변화

천 원/지육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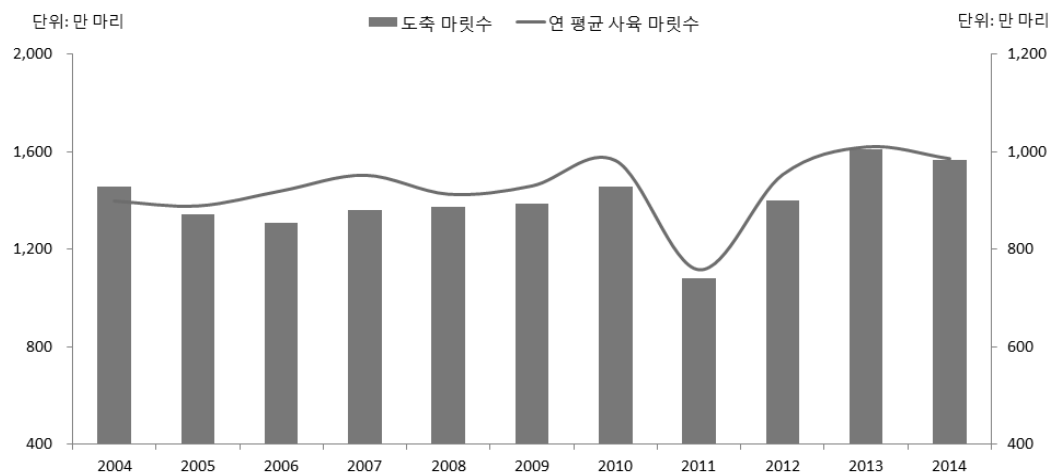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2.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현황

-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01년 852만 마리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14년 986만 마리였음.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약 332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어 758만 마리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모돈 입식 증가로 2013년 1,01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음. 2013년 모돈 자율감축이 시행되었고, 2014년 초 돼지 소모성질병(PED)의 발생으로 2014년 사육 마릿수는 986만 마리로 2013년 대비 2.4% 감소하였음.
- 도축 마릿수는 2001년 1,382만 마리에서 2014년 1,565만 마리로 연평균 1.0%씩 증가함. 2010년 1,459만 마리였던 도축 마릿수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1년 1,082만 마리로 2010년 대비 25.8% 감소함. 이후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3년 1,610만 마리까지 증가한 도축 마릿수는 2014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3년보다 2.8% 감소함.

돼지 도축 마릿수 및 연평균 사육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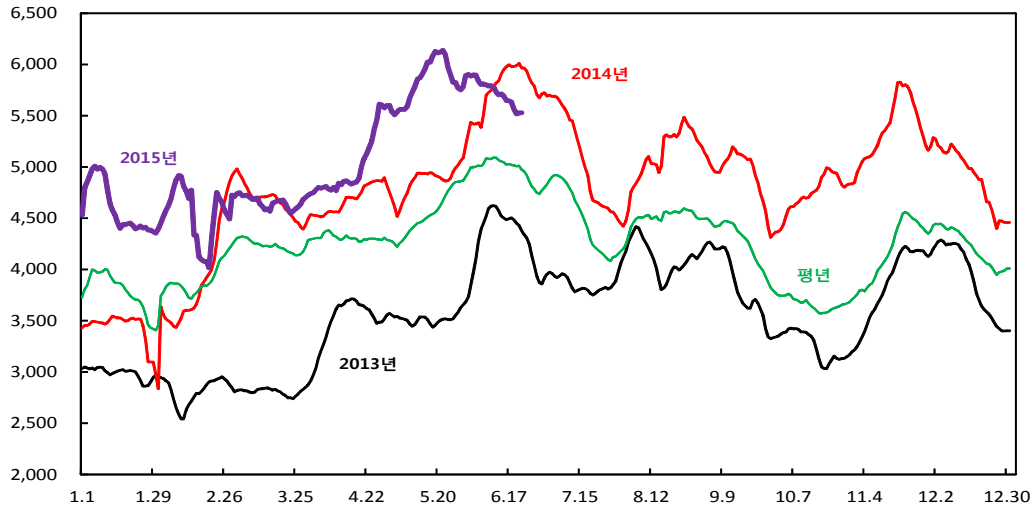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4년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PED 발생으로 2013년의 85만 4천 톤보다 3.1% 감소한 82만 7천 톤이었음. 이는 평년의 77만 9천 톤보다 11.9% 많은 양이었음. 수입량은 2013년의 18만 5천 톤보다 48.1% 증가한 27만 4천 톤이었음.
- 2003년 탕박 기준 kg당 2,270원이었던 돼지 도매가격(지육)은 구제역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해 2011년 5,849원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3년 3,599원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4년 모돈 감축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캠핑문화 확산과 저지방 부위 선호, 식육가공품 소비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은 2013년의 3,599원보다 33.3% 상승한 4,798원이었음. 2015년 6월까지의 평균 도매가격은 4,941원이었음.

돼지고기 도매가격 변화

탕박 지육가격(원/kg)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고기는 2014년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2013년 대비 가격이 상승하였고, 돼지고기는 약간의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음. 이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육류 수요변화 요인

- 2014년을 전후하여 육류의 수요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대형유통업체 할인 행사,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가공육 수요 증가, 캠핑문화 확산,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대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요 대체, 학교급식 증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3.1. 소비촉진과 할인행사

- 정부는 2011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함으로써 한육우 가격이 폭락하자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농협과 대형유통업체들을 통한 한우 할인행사였음.
- 정부와 한우업계는 2011년 이후 한우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한우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이러한 할인행사는 한우고기 수요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한우 할인행사 실적

단위: 두

구 분	실 적					
	농협	유통업체	기타	소계(A)	한우도축(B)	A/B
2011년	7,453	—	—	7,453	716,357	1.0%
2012년	22,251	12,423	1,614	36,288	842,726	4.3%
2013년	24,380	22,057	683	47,120	959,752	4.9%
2014년(1~5월)	12,691	5,490	824	19,005	387,195	4.9%
계	66,775	39,970	3,121	109,866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2011년 농협을 통해 한우 7,453두에 대해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함. 2012년에는 농협, 유통업체, 기타 등 36,288두를, 2013년에는 47,120두를, 2014년에는 5월까지 19,005두를 할인 판매하는 등 지난 4년간 총 109,866두를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함.

3.2.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 2000년대 후반에 들어 한우고기의 판매형태가 다양해짐. 기존의 한우구이 전문점들이 가격이 비싸 소비 확대에 한계를 보이자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를

맛볼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이 등장함.

- 정육점형 식당은 정육점과 식당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을 의미함. 이러한 음식점의 특징은 세금 등의 문제로 형태만 결합되어 있을 뿐 경영은 독립되어 있다는 것임. 정육점형 식당은 서비스와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쇠고기 소비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함.
 - 정육점형 식당으로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곳은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육점형 식당, 일반 정육점과 음식점이 결합한 형태가 있음.

전국 농·축협 축산물판매장 현황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75	45(120)	26(146)	15(161)	19(180)	30(210)	40(250)
정육점형 식당	일반형	29	9	7	5	4	6	1
	셀프형	8	8	5	6	3	8	-
	혼합형	4	2	9	1	4	4	-
판매장		34	26	5	3	8	12	39

주: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집계 분류하였으며, 괄호 안은 누적치임.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고기 전문점(일명 축산물 플라자)의 경우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2008년에 75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0개에 달함.

3.3. 캠핑문화의 확산

- 최근 가정의 나들이 활동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가족 나들이가 유원지나 콘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펜션이나 캠핑장이 가족 나들이의 중심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TV 유명 프로그램 등의 영향과 아웃도어의 붐으로 캠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캠핑인구는 2010년 60만 명, 2013년 130만 명, 2014년에는 240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최근 3년간 4배 이상 급증함(통계청).
- 이와 관련되는 스포츠·레저용품 거래액도 2004년 3,211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600% 성장함(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 한국관광공사 캠핑 정보제공 사이트³⁾에 의하면 2015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704개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572개)와 강원도(346개)에서 전체 캠핑장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북(301개)이 약 18%로 다음을 잇고 있음.

전국 캠핑장 현황

단위: 개,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572 (33.6)	346 (20.3)	93 (5.5)	131 (7.7)	61 (3.6)	83 (4.9)	164 (9.6)	137 (8.0)	35 (2.1)	82 (4.2)	1,704 (100)

주: 기타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3.4. 식육가공품 수요 증가

- 식육가공품 소비는 국민 소득 증가와 식품 소비 패턴의 간편화, 다양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 식육가공품 판매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9%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만 2,446톤이었음.
- 축육을 이용한 식육가공품 판매량은 지난 24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어육이 주원료인 혼합소시지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축육 제품 판매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혼합소시지의

3) 대한민국 구석구석 Go Camping. <<http://www.gocamping.or.kr>>.

경우 오히려 연평균 1.6% 감소하였음.

- 최근 육류소비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비선호부위인 돼지고기 전지와 후지, 등심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임. 이 부위들은 대부분 식육가공품인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데 이용됨.
 - 2014년 삼겹살 가격이 2013년에 비해 13.9% 상승하는데 그친 데 반해 등심은 45.9%, 후지는 37.9%, 갈비는 34.8%, 전지는 33.2% 상승함.
-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저지방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2013년 11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되면서 가공원료육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13년과 2014년의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동향

단위: 원/kg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목살	등심	전지	후지	안심
2013년(A)	11,946	5,710	11,660	4,033	5,299	3,063	4,590
2014년(B)	13,610	7,699	13,642	5,885	7,056	4,222	5,753
A/B(%)	13.9	34.8	17.0	45.9	33.2	37.9	25.3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3.5. 가금육과 수산물의 대체 수요 증가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육류 대체 효과⁴⁾

- 20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가 발생하여 닭,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약 1,5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음. HP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체 효과가 발생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HPAI 발생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한우 1등급 도매가격(지육기준)은 2014년 2월에는 kg당

4) 허덕 외. 2015. 『2014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연구(2014년 AI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500원이었으나, 4월에는 13,900원까지 상승하였음. 같은 기간 도축 마릿수는 2013년과 비슷하여 도매가격 상승은 생산 측면보다는 HPAI 발생으로 인한 가금산물 소비 대체효과, 할인행사 등 수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가금산물 대체 효과로 돼지고기 수요는 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HPAI 발생 전은 kg당 3,000~3,500원(도매지육가격)에서 형성되었으나, 2014년 3월 5,000원까지 상승함. 2~4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6.9% 상승함. 같은 기간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하여, 도매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와 가금산물 소비 대체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나.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대체 효과

-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와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17개 품목, 223건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2013년 8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내용이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불신으로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허덕 외 2013).
- 수산물 수요 감소는 육류 수요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오염수 누출 보도 이후 육류별 평균 수요 증가율 추정 결과, 국산 돼지고기 10.3%, 한우고기 6.0%, 닭고기 7.4%, 오리고기 4.5% 등으로 나타나 평균 수요 증가폭은 국산 돼지고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허덕 외 2013).

수산물 대체 육류의 평균 수요 증가율

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한우고기	오리고기	수입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10.3%	7.4%	6.0%	4.5%	2.2%	0.8%

자료: 허덕 외(201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농정포커스』 제7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 학교 급식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

- 학교 급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급식에서 국내산 육류 사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급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 관광객 수의 증가는 한류 대표 메뉴인 불고기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은 2~3등급 한우고기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기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4. 수급요인별 가격 효과 분석

4.1. 분석방법

-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수급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요인별로 가격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았음.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탄성치를 이용하여 수요변화 요인별 가격효과를 계측함.
-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과 수요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추정한 탄성치와, 그 역수인 신축성 계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급 요인의 변화가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 쇠고기의 수요탄력성을 1.06⁵⁾으로 가정할 경우 가격 신축성 계수는 그 역수인 0.94임. 쇠고기의 공급신축성은 국내생산을 -0.74, 수입을 -0.17, 돼지 대체탄력성을 0.12로 사용함.⁶⁾

5) 정민국 외. 2011.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1/4년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국내생산(도축)과 수입의 신축성 계수는 정민국(2007)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돼지고기 대체탄력성은 KREI 총량모형(KREI-KASMO)을 이용하여 계산함.

- 돼지고기의 수요에 대한 신축성 계수는 1.67, 국내생산의 신축성 계수는 - 3.23, 수입은 -0.05를 사용함.⁷⁾
- 방사능과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 변화에 대한 영향을 수치화하여 제시함.

4.2. 쇠고기 수급 영향 추정 결과

- 공급 측면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2014년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이 2013년보다 증가하여 한우 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생산이 0.3% 증가하여 0.2%의 도매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 수입량은 9.3% 증가하여 쇠고기 도매가격을 1.6%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됨.
-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7월 이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산물 대체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HP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대체수요,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등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함. 2014년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도 쇠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지난 2013년 11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소비자 조사 결과,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 요인이 6.0%⁸⁾로 조사됨.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절반으로 경감된 3.0%로 가정함. 또한 2014년 3월 소비자 조사 결과, HPAI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가 3.1%⁹⁾로 조사됨.

7) 수요 신축성 계수는 KREI 총량모형(KREI-KASMO)을, 국내생산과 수입의 공급에 대한 신축성 계수는 돼지중기선행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함.

8) 허덕 외, 201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농정포커스』 제7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14년 3월 25일~4월 2일.

- 따라서 방사능 대체수요가 3.0% 증가하여 2.8%의 쇠고기 도매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음. HPAI로 인한 대체수요가 3.1% 증가하여 2.9%의 쇠고기 도매가격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또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나머지 가격 상승 요인을 기타로 묶어서 가정하여 계산함.
 -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31.6% 상승하여 쇠고기 수요가 3.8% 증가하고, 이는 쇠고기의 도매가격을 3.6% 상승시키는 효과로 나타남.
 - 기타(소비 촉진 할인행사,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수요 증가 요인이 4.3%로 조사되어 이는 4.0%의 가격 상승효과로 계산됨.

한우가격 상승 요인별 기여(2013년 대비 2014년 증감률)

	공급		수요			
	국내생산	수입	방사능	AI 대체	돼지대체	할인행사, 정육점형식당 등
증감률	0.3% 증가	9.3% 증가	3.0% 증가	3.1% 증가	3.8% 증가	4.3% 증가
가격기여도	0.2% 하락	1.6% 하락	2.8% 상승	2.9% 상승	3.6% 상승	4.0% 상승

주: 도축(국내산)과 수입의 신축성 계수는 정민국(2007)을 근거로 재추정하였으며, 수요는 정민국(2011)을 이용하였음.

4.3. 돼지고기 수급 영향 추정 결과

- 돼지고기 공급 측면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2014년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입량은 2013년보다 증가해 돼지고기 가격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국내 돼지고기 생산이 3.1% 감소하여 10.0%의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48.1% 증가하여 2.4%의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됨.
-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7월 이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산물 대체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14년 1월에 발생한 HPAI로 인한 가금산물 대체수요, 캠핑문화 확산, 저지방 부위 선호, 가공육 수요 등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함.
- 지난 2013년 11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소비자 조사 결과,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 요인이 10.3%¹⁰⁾로 조사됨.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절반으로 경감된 5.0%로 가정하여 계산함. 또한 2014년 3월 소비자 조사 결과, HPAI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 5.3%¹¹⁾로 조사됨.
 - 방사능 대체수요가 5.0% 증가하여 8.4%의 가격 상승효과로 나타남.
 - AI로 인한 대체수요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9%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캠핑문화 확산, 저지방부위 선호, 가공육 수요) 수요 증가 요인으로 5.1% 수요증가가 발생해 가격은 8.5% 상승한 것으로 계산됨.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요인별 기여도(2013년 대비 2014년 증감률)

	공급		수요		
	국내생산	수입	방사능	AI 대체	캠핑, 저지방 부위, 가공육 등
증감률	3.1% 감소	48.1% 증가	5.0% 증가	5.3% 증가	5.1% 증가
가격 기여도	10.0% 상승	2.4 하락	8.4% 상승	8.9% 상승	8.5% 상승

주: 신축성 계수는 KREI-KASMO 추정치와 돼지중기선행모형을 이용함.

10) 허덕 외. 201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농정포커스』 제7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14년 3월 25일~4월 2일.

5. 육류 소비 확대를 위한 제언

5.1. 수요변화 요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최근 육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요 부분이 육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 가공육 수요 증가, 캠핑문화 확산, 학교급식 증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도 중요한 수요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수요변화 요인들은 외식과 레저문화의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요변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육류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장의 대응이 필요함. 특히 이와 같은 문화의 변화는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식문화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5.2. 수요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시장대응

- 한우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우고기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돼지고기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과잉 공급되면서 양돈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냄.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생산업계, 유통업계는 수요확대 정책으로 대규모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음.
- 할인행사가 소비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유통업계도 대량판매를 통해 이윤축소를 상쇄하고 소비자 유인책으로 이용되었음. 소비자의 경우도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고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소비자 잉여 증대에 역할을 담당하였음.

- 특히 대규모 할인행사는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과잉 시기, 즉 도매가격이 낮은 시기에 진행되고, 재고로 쌓이는 부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할인행사로 일시적으로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낮은 도매가격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남.
 - 향후 육류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공급 과잉물량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5.3.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위해요인 제거 노력

- 2013년 8월 일본의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는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고 육류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육류의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그 영향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임. 2014년의 HPAI 발생은 가금류의 소비감소와 한우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러한 수요변화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가축질병 재발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구제역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를 일으켜 가격을 하락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산업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지속적인 대규모 가축질병의 발생은 육류소비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철저한 방역노력이 필수적임.

5.4. 새로운 식문화 개척 노력 필요

- 쇠고기의 경우 특수부위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한우고기 가격을 올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특수부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육가공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요개발을 위한 부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봄.

- 돼지고기의 경우 캠핑문화 확산이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지속적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를 위해 캠핑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캠핑 시장 규모·전망, 캠핑 시 소비자 선호 육류·부위 등) 공유가 중요함. 이와 동시에 캠핑 맞춤형 육가공 상품 개발을 통해 돼지고기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와 대응방안

송성환*, 노수정**, 최병옥***

1. 문제 제기

- 고추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 미곡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장 개방과 농가의 고령화 및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도 2014년산보다 줄어 역대 최저 재배면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2014년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이월재고량이 남아 있어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음.
- 최근 5년간의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보다 22% 감소하여, 수확기 이후 건고추 수급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의 경우 건고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내 건고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 결과,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등 관련 품목의 민간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2012년과 2013년에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고추 관련 품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량이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bochoi@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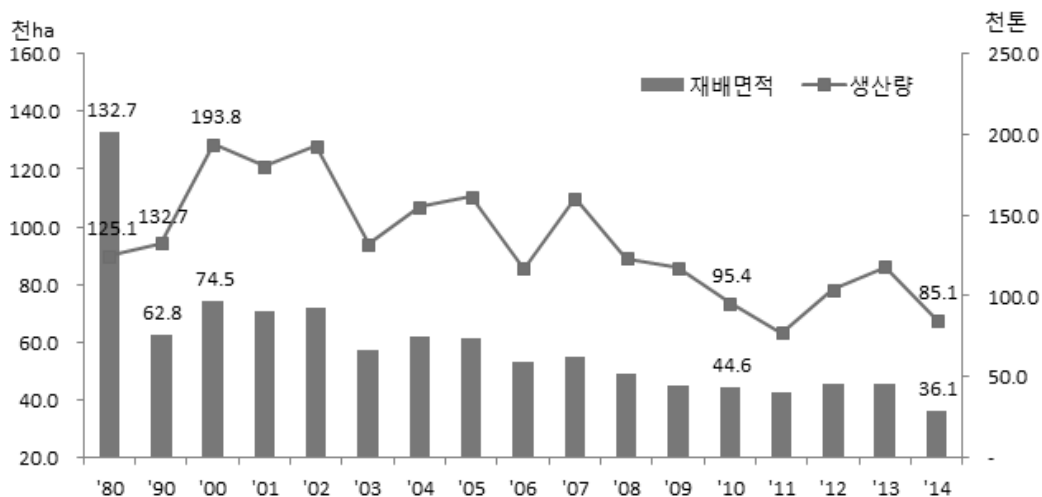
-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이 역대 최저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국내 고추가격 상승과 고추 관련 품목의 수입증가, 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 감소가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연도 재배면적 확대와 가격하락, 재고량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악순환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및 수급량 예측을 통해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2011년도와 같은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건고추 생산 및 수출입 동향

2.1. 2000~2014년 건고추 생산량 연평균 5.7%씩 감소

- 1980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132,703ha에서 1990년 62,759ha, 2000년 74,471ha, 2010년 44,584ha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36,120ha로 2000년(74,471ha) 이후 연평균 5.0%씩 감소하고 있음.
-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기상여건에 따라 등락이 심함. 2011년산은 여름철이 길고, 잦은 강우로 역대 최저치인 181kg을 기록하였음. 2007년산은 기상여건 호조로 292kg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산은 236kg을 생산하는 데 그침.
 - 2000~2014년 기간 동안 단수는 연평균 0.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념채소류에 비해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마늘 1.7% 증가, 양파 2.1% 증가).

건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건고추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이 부진함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 193,786톤에서 2014년 85,068톤으로 연평균 5.7%씩 감소함.
- 고추 수확농가의 70세 이상 노령화 비율은 37.6%로 전체 농가 및 양파 농가 보다 높으며, 10a당 노동력 투입시간도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노령화 비율 및 노동투입시간

단위: %, 시간

	70세 이상 농가 비율				10a당 노동투입시간		
	전체	고추	마늘	양파	고추	마늘	양파
2010	30.9	33.9	36.7	27.7	167.6	128.5	103.5
2011	33.7	36.4	38.7	31.8	159.4	121.3	99.9
2012	36.2	39.2	40.7	33.7	162.5	122.3	99.8
2013	37.7	40.9	42.3	33.4	154.6	125.6	106.8
평균	34.6	37.6	39.6	31.7	161.0	124.4	102.5

자료: 통계청, 농어업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2.2. 2000~2014년 고추류 순수입량은 연평균 9.7%씩 증가

- 고추류¹³⁾ 총수입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은 2000년산 2만 9,915톤에서 2013년산 9만 6,407톤으로 연평균 9.4%씩 증가함.
 - 건고추 생산량이 77,110톤으로 가장 적었던 2011년에 고추류 수입량은 119,256톤으로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였음. 국내 생산량이 10만 톤 내외였던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96,000톤 이상이 수입되었으며, 2014년(8월~2015년 7월)에는 약 10만 톤이 수입될 전망이다.
- 품목별로는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와 고춧가루(270%)의 수입은 전체 고추류 수입량의 10% 수준이며, 관세가 낮아 수입업체가 선호하는 냉동고추(27%)는 34%, 혼합조미료·기타소스¹⁴⁾(45%)는 45%를 차지하고 있음.
- 고추류 총수출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은 2000년산 6,984톤에서 2013년산 1만 9,762톤으로 연평균 8.3%씩 증가하였으며,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등 관련 품목 수출량은 2000년 3,857톤에서 2013년 1만 6,124톤으로 연평균 11.6%씩 증가하였음.

건고추 수출입 동향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기준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수입 (A)	건고추	8,131	10,809	11,735	20,445	5,235	6,543
	관련 품목	21,784	56,913	89,686	98,812	91,514	89,864
	합계	29,915	67,722	101,422	119,256	96,749	96,407
수출 (B)	건고추	3,127	2,540	3,273	3,626	3,972	3,639
	관련 품목	3,857	5,964	11,170	12,453	14,302	16,124
	합계	6,984	8,504	14,444	16,079	18,274	19,762
순수입(A-B)		22,931	59,218	86,978	103,177	78,475	76,645

주 1) 고춧가루를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합한 수치이며 고춧가루 수율은 63.8%임.

2) 관련 품목 수출입량은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를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13)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과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등에 포함된 고춧가루를 의미하며, 해당 품목에 포함된 고춧가루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수분을 제거한 건고추로 환산하여 중량을 집계하였음.

14) 혼합조미료(고춧가루 건다대기, HSK Code: 2103.90.9030), 기타소스(습다대기, HSK Code: 2103.90.9090)

- 고추류 순수입량은 2000년산 2만 2,931톤에서 2013년산 7만 6,645톤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하였으며,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는 동 기간 연평균 4.1%씩 감소한 반면, 관련 품목은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음.

3. 건고추 수급 및 가격 동향

3.1. 건고추 평년 자급률 54% 수준

- 2000년산 건고추 국내 생산량이 193천 톤을 상회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30천 톤 미만으로 자급률은 89%에 달하였으나, 2011년산 국내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42%로 낮아짐.
- 최근 5개년의 평년 건고추 생산량은 99,977톤에 그치고 있는 반면, 고추류 수입량은 100,723톤으로 국내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음. 그 결과 전년 이월량을 포함한 자급률은 54% 수준에 그침.

건고추 수급 동향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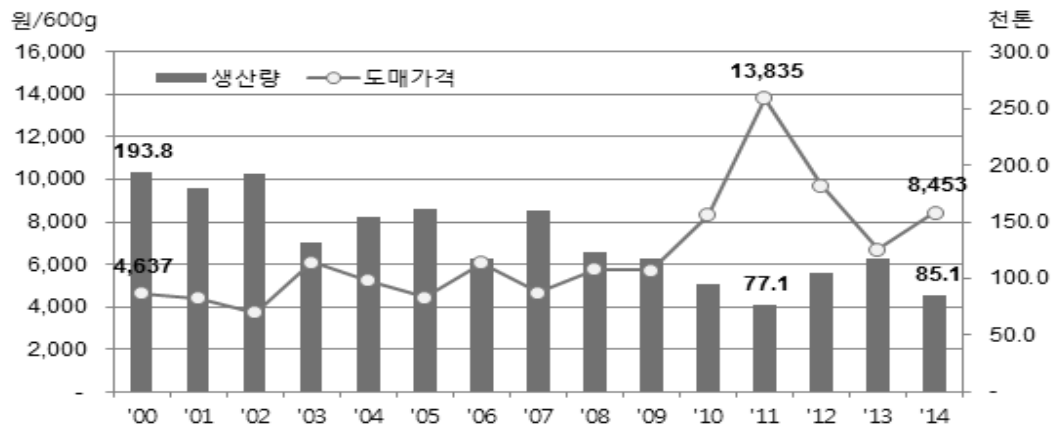
연 산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평년
재배면적	74,471	44,584	42,574	45,459	45,360	36,120	44,173
총 공급량	223,701	197,813	199,366	201,895	216,223	198,068	199,776
생산량	193,786	95,391	77,110	104,146	117,816	85,068	99,977
수입량	29,915	101,422	119,256	96,749	96,407	104,000	100,723
총 수요량	223,701	197,813	199,366	201,895	216,223	198,068	199,776
소비량	216,717	183,369	183,287	183,621	196,461	176,068	183,426
수출량	6,984	14,444	16,079	18,274	19,762	22,000	18,039
자급률	89.4	52.9	42.3	58.0	62.5	50.0	53.6

주 1) 201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통계청 확정치이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이 포함된 것임.

2) 2014년산 수출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 2000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건고추 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특히 건고추 국내생산량이 77천 톤에 그쳤던 2011년산은 연평균 13,835원/600g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11년산 가격의 큰 폭 상승은 2012~2013년산의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짐. 그 결과 국내 가격은 하락하여 이월재고량이 증가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됨.
- 2014년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대비 19% 감소한 85천 톤에 그쳤으나, 2012~2013년산 이월된 건고추 재고량이 많아 가격은 평년대비 1% 상승한 8,384원(2014년 8월~2015년 6월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음.

건고추 생산량 및 가격 동향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주: 화건 상품 600g의 월평균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2015년산 건고추 생산 및 수급전망

4.1. 2015년산 재배면적 전년대비 4% 감소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면적인 34,6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년보다 22%가 적은 면적임.

건고추 재배면적 전망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연산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평년	2015
재배면적	74,471	44,584	42,574	45,459	45,360	36,120	44,173	(34,574)

주: 2015년산 재배면적은 재배의향 조사치를 반영한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6월 18일 표본농가 조사치.

4.2. 2015년산 생산량 평년대비 22% 감소 전망

- 지역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결과(7.15), 현재까지 고추 생육 상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정식 이후 지속된 고온가뭄으로 해충 및 바이러스 발생률이 증가하여 초기 생육이 다소 부진하였음. 6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로 가뭄이 해갈되어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됨.
 - 전년도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경북·충북 지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적어 현재 작황은 전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2015년산 건고추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한 경우 생산량은 7만 8천톤으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8%, 평년대비 22% 감소할 전망이다.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망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증감률	
				전년대비	평년대비
2015년산	(34,570)	226	(78,252)	-8.0	-21.7
2014년산	36,120	236	85,068	-	-
평년	44,173	226	99,977	-	-

주 1) 평년은 2010~2014년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치임.

2) 2015년산 생산량은 최근 5년간 평년 단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4.3. 2015년산 수급량 평년대비 9% 적을 전망

- 2015년 7월 말 현재 정부비축물량 6,144톤을 포함한 정부·농협 보유량은 약 7,840톤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재고량이 1만 톤 이상 남아있어, 전체 이월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적으나 평년보다는 많은 2만 톤 내외로 추정됨.
- 2015년산 생산량을 8만톤 내외로 가정하고, 고추류 수입량이 9만 4천 톤 정도일 경우 2015년산 수급량은 평년대비 9% 적을 것으로 전망됨.

4.4.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011년산 건고추 수급기간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생산량 감소는 가격 급등과 고추류 수입량 증가로 이어짐. 또한 차기 연도 재배면적 확대, 생산량 증가, 재고량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국내가격의 하락, 재배면적 감소, 자급률 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수입산 고추류는 국내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적어 급식업체, 식자재 업체 등 대규모 수요처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수요로 이어져 국내산 건고추의 수요를 감소시킴.
 - 음식점 소비실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14. 11.) 결과,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살펴보면, 건고추는 총 구입량 중 90%가 국내산으로

나타났으나,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구입 비중이 41%로 전년동기대비 5%p 증가함(농업전망 2015).

-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보다 적고, 수급량도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고추 작황에 따라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추류의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2015년산 고추의 적절한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5. 대응방향

5.1. 적정 재배면적 유지

- 고추의 평년 수요량 200천 톤 중 수입량 100천 톤을 감안할 때 국내 생산량을 100천 톤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당 수확량을 단기간에 증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배면적 감소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관측 정보의 확산을 통한 재배면적 감소의 심각성 홍보
 - 2015년산 건고추 추정 재배면적의 감소는 역대 최소 재배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시나리오별 생산량을 제시하여 정식면적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함.
-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재배면적 확대
 - 2015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8천 톤에서 10천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고추 재배면적 및 수급조절 기능의 확대
- 예비묘 확보 및 지원
 - 주산지 및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보급 가능한 예비묘 사전 확보 및 지원
 - 각 지역별, 기관별 예비묘 수량 파악과 부족 지역 및 수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5.2. 단위당 수확량 증대 노력

-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노동력이 적게 필요한 품종 개발을 통해 단위당 수확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생육관리 지도 확대
 - 단기적으로는 육묘단계에서 수확기까지 재배 전 기간에 대한 생육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
 -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시도별 적절한 방제방법 교육 및 지도
- 비가림(하우스) 재배 확대를 통한 단위당 수확량 증대
 - 비가림 재배 방식은 노지보다 병충해 피해가 적고, 기상여건 변화에도 강해 단위당 수확량이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600ha를 목표로 시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비가림 시설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일시수확형 또는 수확횟수 적은 품종 개발
 - 건고추 재배면적은 노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확횟수가 적고, 노동력 투입이 적으며, 안정적 단위당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필요함.
 - 고추의 10a당 노동 투입시간은 161시간(2010~2013년 평균)으로 마늘 124시간, 양파 103시간보다 많음.
- 내병성 품종 개발
 - 최근 지구 온난화,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변화가 잦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
 - 역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보급이 확대되면서 역병의 피해는 크게 감소한 반면, 전염성이 높고 피해가 큰 탄저병이나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필요함.

5.3. TRQ 수입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유도

- 정부는 고추의 TRQ¹⁵⁾ 6,461톤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았던 2013년산 수급기간에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5년산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가격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TRQ 수입량 및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15) TRQ(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건고추 50%)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270%)를 부과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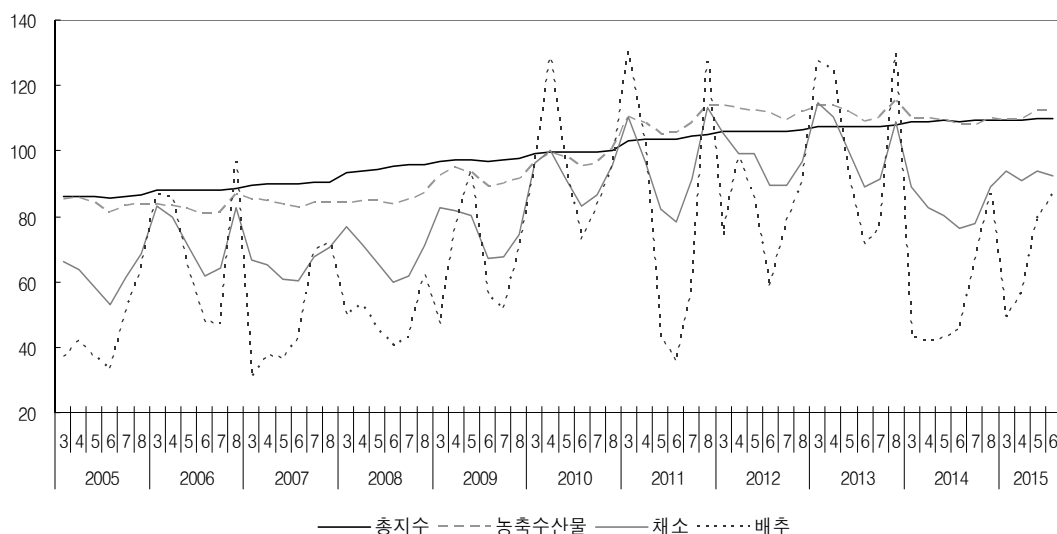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과 소비자의 인식

이용선*, 박한울**, 박지원***

1. 2/4분기 배추 가격은 작년과 전분기보다 상승

- 2010년 배추 가격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후 하락하였음.
2014년에는 2011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올해 2/4
분기에는 다시 반등하였음.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phu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ione1105@krei.re.kr)

- 6월 배추 소매 및 도매가격은 각각 작년 대비 86%, 146% 높았음. 6월 배추 가격은 소매가격(상품기준)이 한 포기에 2014년 1,827원, 2015년 3,393원이었으며, 도매가격은 1kg에 2014년 379원, 2015년 933원 수준이었음.

배추 월별 소매 및 도매 가격(상품)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소매(포기당)	1,964	1,990	1,840	1,827	2,311	2,636	3,200	3,393
도매(kg당)	319	279	256	379	514	523	851	933

주: 6월은 6월 1~21일(3주)간 평균치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채소 가격 변동은 일반 물가에 큰 영향 없어¹⁷⁾

- 농축수산물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물가지수 가중치는 2010년 기준 7.8%(1,000 기준에서 77.6)에 불과함. 농축수산물의 물가지수상 상의 가중치는 1990년 191.1에서 2000년 107.4, 2010년 77.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쌀로 대표되는 곡물의 물가지수 가중치가 1990년 55.8에서 2010년 8.2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채소의 가중치는 같은 기간 28.8에서 16.5로 감소했음.
 - 배추의 물가지수 가중치는 2010년 1.7로 전체의 0.2%에 불과함.
- 2001년 이후 물가변동에 농축수산물이 기여한 정도(물가기여도)¹⁸⁾는 전체의 12.1%이며, 이 중 농산물이 7.1%, 축산물이 3.5%, 수산물이 1.8%임. 기간별 물가기여도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 10.3%에서 2008년 이후 14.7%로 상승하였음.

17) 이용선 외(2013)을 바탕으로 작성함.

18) 농산물 가격의 물가기여도는 농산물 가격변동률에 물가지수상의 농산물 가중치(비중)를 곱하여 산출됨.

- 채소의 물가기여도는 4% 내외로 축산물, 수산물, 곡물에 비해 조금 큰 편임. 채소는 축산물이나 곡물에 비해 가격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임.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의 물가 가중치와 변화기여율

품목명	기준년도별 물가가중치			기간별 물가변화기여율		
	1990	2000	2010	2001-12	2001-07	2008-12
농축수산물	191.1	107.4	77.6	12.14	10.32	14.69
농 산 물	110.8	66.0	43.5	7.11	5.20	9.79
곡 물	55.8	31.6	8.2	0.18	-0.29	0.85
채 소 (배 추)	28.8	16.4	16.5 (1.7)	3.69	3.04	4.60
과 일	22.8	16.6	15.8	3.84	4.07	3.51
기 타	3.4	7.0	3	0.95	0.43	1.66
축 산 물	38.8	23.8	22.1	3.53	4.52	2.14
수 산 물	42	18	12	1.77	0.91	2.97
공업제품	403.4	342.9	317.7	31.13	25.48	39.03
가공식품	78.2	65.7	69	9.21	6.77	12.63
개인서비스	84.0	267.4	320.9	33.09	37.79	26.50
외 식	58.0	100.3	118.2	10.78	10.53	11.13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

- 전반적으로 채소 가격 변동의 총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채소 가격이 10% 상승하면 타 산업 물가에 0.019% 상승시키는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계량모형에 의거한 분석 결과, 채소 가격이 10% 상승하면 외식 물가를 0.47%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3분기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물가는 사료, 화학제품, 석유·석탄 등의 물가 변동에 의해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채소 가격 변동은 그 자체로 물가 변동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타

부문의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¹⁹⁾. 이상과 같이 농수산물의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20년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물가는 그 변동성 때문에 여전히 사회의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소비자는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로 구입 빈도가 높거나 가계지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입이 잦은 데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타 물가에 대한 영향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해 관심이 있고 민감하게 여김에 따라 물가불안심리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농산물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인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3.1. 소비자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은 6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실시했으며 총 응답자는 614명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기반에 의거 실시하였음.

19) 따라서 채소나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물가를 ‘주도’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소비자조사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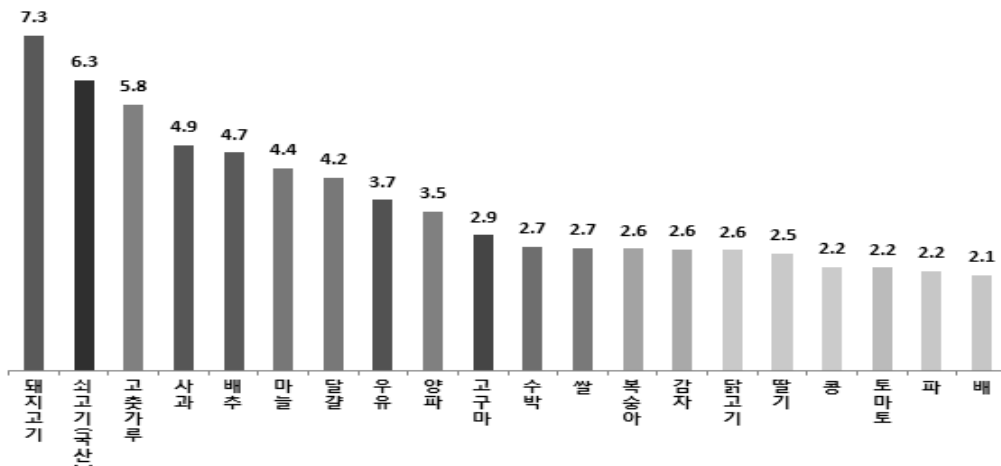
가구원수		소득		학력		나이		지역분포	
명	유효(%)	만원	유효(%)	구분	유효(%)	구분	유효(%)	구분	유효(%)
2	9.6	100~ 200미만	4.9	고졸이하	25.6	30대	19.2	강원	2.6
3	25.5	200~ 300미만	16.1	전문대졸	22.1	40대	46.3	경기	7.5
4	50.6	300~ 400미만	24.5	대졸	47.6	50대	29.9	광주	5.2
5	12.2	400~ 500미만	27.3	대학원졸	4.7	60대	4.7	대구	9.3
6 이상	2.1	500~ 700미만	19.2					대전	5.8
		700이상	8.1					부산	9.1
								서울	41.7
								울산	3.7
								인천	11.0
								전북	2.3
								충북	1.8

- 응답자의 가족수 구성은 2인 9.6%, 3인 25.5%, 4인 50.6%, 5인 12.2%, 6인 이상 2.1%임. 소득계층은 100~200만 원 미만이 4.9%, 200~300만 원 미만이 16.1%, 300~400만 원 미만이 24.5%, 400~500만 원 미만이 27.3%, 500~700만 원 미만이 19.2%, 700만 원 이상이 8.1%임. 학력은 고졸 이하가 25.6%, 전문대졸이 22.1%, 대졸이 47.6%, 대학원졸 이상이 4.7%임. 응답자의 나이대는 30대 19.2%, 40대 46.3%, 50대 29.9%, 60대가 4.7%임.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41.7%, 인천 11.0%, 부산 9.1%, 대구 9.3%, 경기 7.5% 등임.

3.2.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변동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부류는 채소 37.4%, 과일 35.6%, 육류 12.8%, 곡물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소비자는 채소와 과일의 가격변동에 민감한 편임.

최근 3년간 가격변동 불만 품목(상위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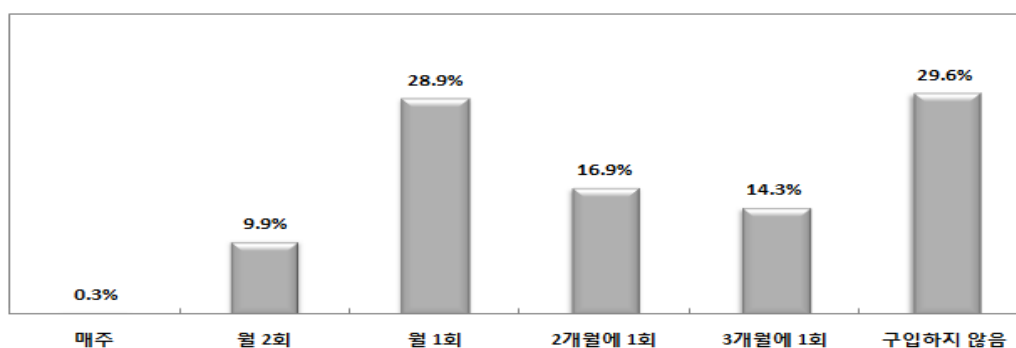
- 소비자가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괴로웠거나 불만이었던다고 응답한 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고춧가루, 사과, 배추, 마늘, 우유, 양파, 고구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쇠고기, 고춧가루의 순위가 오르고 배추 순위는 내려감.
- 최근 3년간 가격변동으로 괴로웠거나 불만이었던 품목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봄에 딸기, 돼지고기, 사과, 쇠고기, 감자, 배추, 양파, 마늘 순
 - 여름에는 돼지고기, 수박, 복숭아, 쇠고기, 참외, 배추, 상추, 달걀 순
 - 가을에는 사과, 돼지고기, 고춧가루, 쇠고기, 마늘, 배, 배추, 고구마 순

- 겨울에는 배추, 돼지고기,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사과, 고구마, 감귤 순
- 소비자는 정부가 농산물 물가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지표)으로 가구의 평균지출비중, 구입빈도, 가격변동성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김장철이 아닌 봄이나 여름의 배추는 가격변동성은 높지만 구입빈도, 물가와 급영향, 지출비중 등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물가관리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최상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4. 소비자의 봄·여름 배추 구입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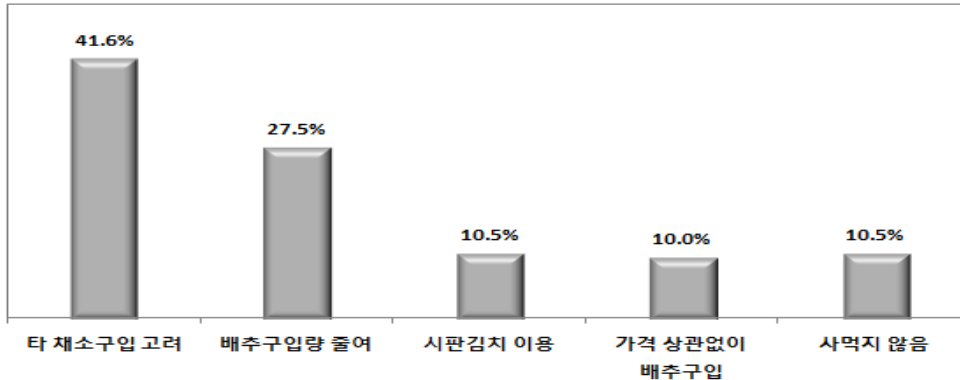
- 여름철 배추 구입빈도에 대한 응답은 구입하지 않음 29.6%, 월 1회 28.9%, 2개월에 1회 16.9%, 3개월에 1회 14.3%, 월 2회 9.9%, 매주 0.3% 순으로 나타남. 즉 전체 소비자의 3분의 1만이 배추를 월 1회이상 구입하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2~3개월에 1회 구입하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름철 배추 구입 횟수



- 소비자가 봄이나 여름에 배추를 구입하는 목적에 대해 김치(겉절이 포함) 80.6%, 찜 13.8%, 기타 4.1% 순으로 응답함. 이는 봄과 여름에 배추가 주로 김치로 이용되고 일부는 찜용으로 이용됨을 나타냄.

배추 가격 상승시 대응 방법



- 배추 값이 비싸면 소비자는 타 채소 구입을 고려하거나 배추 구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배추 가격 상승시 타 채소 구입 고려 41.6%, 배추 구입량 감소 27.5%, 시판김치 이용 10.5%, 가격 상관없이 배추 구입 10.0% 등으로 응답함.
- 배추 대응 채소는 열갈이배추와 열무인 것으로 나타남. 배추 값이 높을 때 소비자들은 열갈이배추 35.2%, 열무 29.3% 등으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 외에 무, 알타리무, 오이, 상추, 양배추를 구입한다는 응답은 각각 6~9% 수준이었음.
- 소비자들은 6월(3주간) 배추값이 ‘조금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20~30% 비싸다고 응답함. 이는 실제 가격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배추 구입 경험이 적어 최근 배추 값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배추 값 수준에 대한 인식은 주로 쇼핑과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임. 배추 값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쇼핑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송 25.3%, 지인 14.6%, 인터넷 5.9%, 신문·광고지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요약과 시사점

- 6월 배추 가격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2/4분기 채소 가격은 작년과 1/4분기에 비해 급등함.
- 채소 가격 변동이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4~5%에 불과함. 채소의 물가 가중치는 1990년 2.9%에서 2010년 1.7%로 감소하였으나, 가격변동을 반영한 물가 기여도 축산물, 수산물, 곡물에 비해 큰 편임.
- 소비자는 육류나 곡물에 비해 채소의 가격 변동에 대해 민감한 편임. 이는 구입 빈도가 높고 가격 변동이 타 농산물보다 크기 때문임. 배추는 소비자가 가격 변동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김장철과는 달리 봄·여름철에는 육류나 과일보다는 불만 순위가 낮게 나타남. 이는 배추가 가격변동성이 크지만 구입빈도나 지출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배추는 소비자의 3분의 1만이 여름에 월 1~2회 구입하고 나머지는 소비자들은 계절에 1~2회 구입하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배추 대용 채소로는 얼갈이배추와 열무가 이용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은 6월 배추 값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20~30% 비싸다고 응답함. 배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수준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배추 구입 경험이 없거나 구입 횟수가 적어 배추 값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봄·여름 배추 가격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 배추 가격의 변동 이유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에 대해 대국민 홍보로 이해를 확산하고, 2) 얼갈이배추, 열무 등을 이용한 식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분산 시키며, 3) 배추의 수급 전망 정보를 고려하여 대체 품목의 생산·공급 전략을 수립토록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 품목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4) 김치업체나 외식업체 등 필수적 수요처는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배추를 조달하도록 장려해야 함.

〈참고문헌〉

이용선 외. 2013. 「농산물 가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 평가와 시사점」. P174. 한국
농촌경제연구원.